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Member FDIC
Bank of Hope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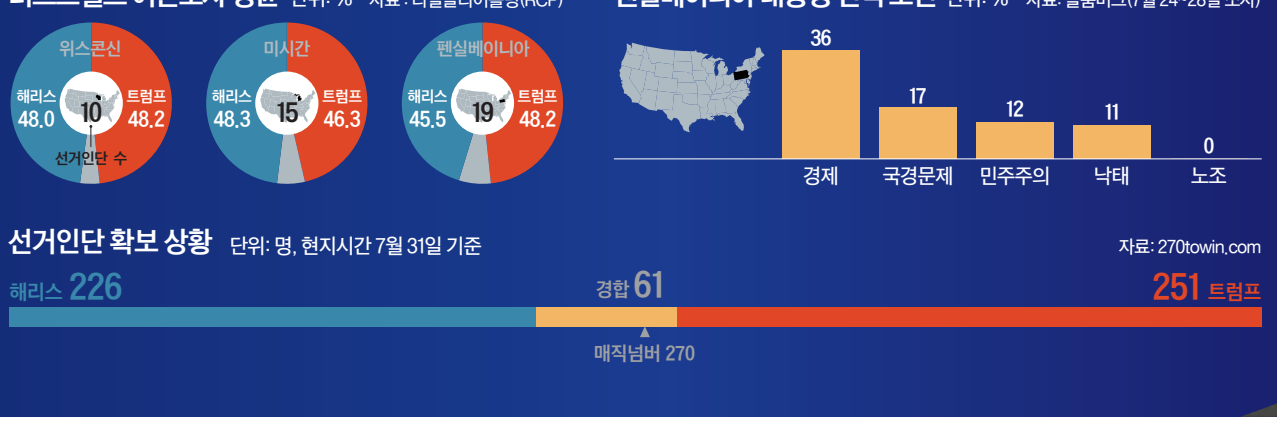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1호

Monday, August 5, 2024 A

해리스·트럼프, 펜실베이니아서 승부



선거인단 19명 걸린 펜실베이니아
트럼프가 오차범위 내 앞서지만
밴스 호감도 36%로 낮은 게 약점

해리스, 민주당 후보 사실상 확정
내일 후보 수락 때 러닝메이트 발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낙점 가능성

미국 대선(11월 5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러스트벨트(rust belt, 쇠락한 북동부 공업지역) 표심이 승자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 '270투윈(270towin)'의 주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각 226명과 25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로 승리가 확실한 곳과 '우세' 주와 '박빙 우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합친 숫자다.

이를 기준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 짓는 '매직넘버'(270명)까지 추가로 필요한 선거인단은 각각 44명과 19명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 전국 기준으로는 해리스의 추격세가 뚜렷하지만, 주별로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에선 트럼프가 여전히 유리하다는 의미다.

승패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합주는 5곳이다. 3곳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북부 오대호 인근의 펜실베이니아(19명)·위스콘신(10명)·미시간(15명)이고, 다른 2곳은 선벨트(sun belt)로 불리는 멕시코 국경 인근의 애리조나(11명)·네바다(6명)다. 로버트 슈멀 노터데임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이번 대선의 승패는 러스트벨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당 모두 남은 선거 기간 이곳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러스트벨트 3개 주 44명의 선거인단은 해리스의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이다. 러스트벨트의 핵심 펜실베이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19명)은 트럼프에게 필요한 선거인단 수와 같다.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을 석권하면 승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한 곳만 가져와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바이든 사퇴 이후 러스트벨트 판세는 백중세가 됐다. 선거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링(RCP)이 집계한 최근 여론조사 평균은 위스콘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48% 대 48.2%, 미시간은 48.3% 대 46.3%, 펜실베이니아는 45.5% 대 48.2%로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는 대통령 선택의 조건을 경제(36%), 국경 문제(17%), 민주주의(12%), 낙태(11%) 순으로 꼽았다. 1·2순위인 경제, 국경 문제는 트럼프가 주도해온 이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이승호 기자

» 8면 '펜실베이니' 로 이어집니다

대한항공 무료 컵라면, 좌석 차별하나

화상 위험 일반석 서비스 중단
상위 좌석 계속 제공 "아쉽다"

미주 노선 등 장거리 일반석 승객들에게 무료 컵라면을 제공했던 대한항공이 오는 15일부터 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최근 난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항공사 측 설명이다.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미주·유럽 등의 노선이 대상이다. 대신 대한항공은 컵라면보다 단가가 최대 2배 이상 비싼 피자나 콘도그 등 다른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반석의 경우 승객이 밀집한 공간에서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옮기는 과정에서 화상 위험이 컸다.

반면, 비즈니스석과 퍼스트클래스의 경우 기존 라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일반석과 달리 상위 클래스는 좌석 밀도가 높지 않고 테이블도 커서 화상 발생의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인천 간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는 김영하(55·LA)씨는 "일반석에서만 컵라면 제공을 중단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승객 입장에선 컵라면 하나로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4.9㎜ 차이로 … 김우진 3관왕 한국 양궁 금 싹쓸이 드라마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우진(가운데)과 동메달을 딴 이우석(오른쪽). 왼쪽은 은메달리스트 브래디 엘리슨.

파리=김성룡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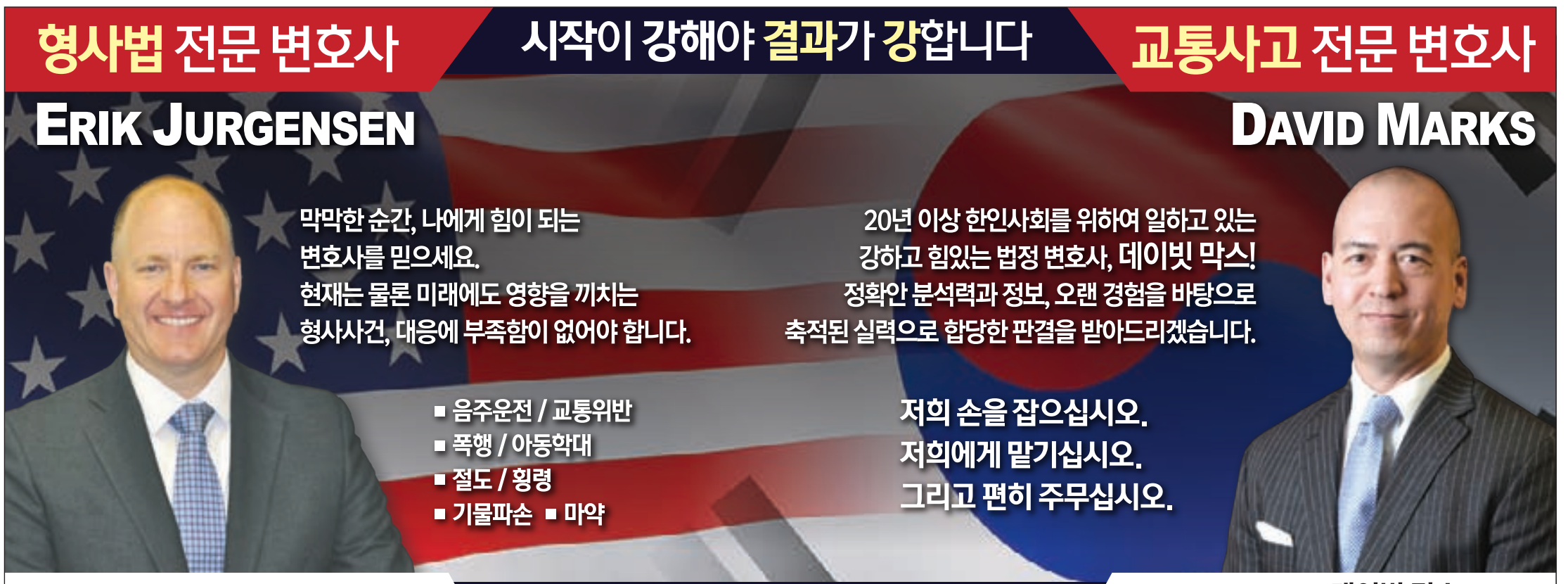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DAVID MARKS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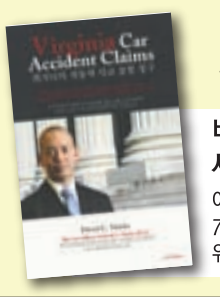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Super Lawyers
Martindale-Hubbell NOTABLE 2019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BEST LAWYERS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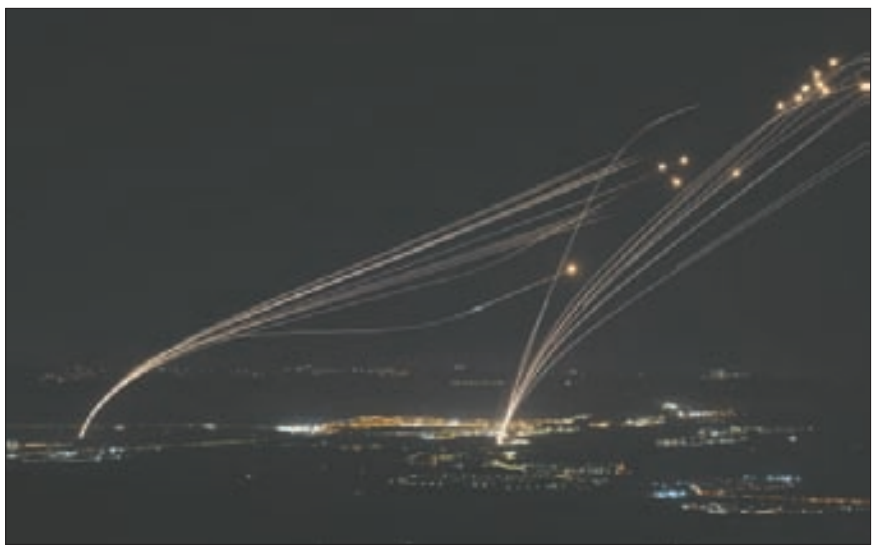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이란,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 공격 … 미, 중동에 전함 급파

서방국, 자국민에 즉시 출국 권고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로켓 공방전

바이든 "네타냐후, 헛소리 작작하라"
하니야 암살 다음날 전화로 경고



이스라엘 아이언돔 대공 방어시스템이 4일(현지시간) 밤 북부 갈릴리 지역을 공격하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로켓을 요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란이 이르면 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동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 해·공군 전력을 증파하는 한편 미국과 영국 등은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에 즉시 철수를 권고했다.

이란은 지난달 31일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암살된 후 복수를 예고해왔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최고위급 간부가 사망한 데 대해 보복을 다짐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까지 힘을 합쳐 총공세를 펼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3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은 이란이 이르면 5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CNN 방송도 "이란의 공격이 수일 내 이뤄질 수 있어 미국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8월 12~13일)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이스라엘 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 당국자는 이날 중동을 찾은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요르단 등을 방문해 이스라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4월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수백기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당시 미국은 요르단 등 아랍의 우방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엔 이란이 대리세력들과 연계해 지난 4월에 비해 더 큰 규모로, 복잡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WSJ)은 이날 "이란과 헤즈볼라가 미국과 아랍 외교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며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난 4월 공격 때보다 예측할 수 없고, 심각한 보복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의 보복 수위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물러서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라지만 모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숨진 것과 관련해 "헤즈볼라가 더 넓고 깊은 목표물을 선택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3일 밤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수십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서방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서둘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탄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니야 암살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니야 암살 다음 날인 지난 1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나한테 헛소리 좀 작작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네타냐후는 하니야 암살이 휴전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바이든은 암살이 협상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립했다.

임선영 기자

"하니야 숙소에 폭탄 있었다" vs "외부서 미사일 쐈다"

〈서방 언론〉

이란혁명수비대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는 단거리 발사체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사주를 받은 혁명수비대원들이 숙소에 폭발물을 설치해 하니야를 암살했다는 서방 언론들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혁명수비대는 3일(현지시간) "지난달 31일 하니야에 대한 테러는 약 7kg의 탄두를 실은 단거리 발사체를 숙소 밖에서 발사해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오니스트 정부가 계획해 실행하고, 미국의 범죄 정부가 방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2일 암살 과정에서 혁명수비대 부대원 2명이 모사드 공작원으로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테헤란 북쪽에 위치한 혁명수비대 건물 내의 방 세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혁명수비대 소속의 안사르 알-마흐디 경호부대원을 사주했다"며 "건물 조사과정에서 (터지지 않은) 폭발물 2개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안사르 알-마흐디 경호부대는 이란 고위층의 경호를 맡는 조직이다.

미국 악시오스도 "미리 설치된 폭탄에는 인공지능(AI) 첨단기술 장치가 장착돼 있었고, 하니야가 방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모사드 요원이 원격으로 폭파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거의 두 달 전 하니야의 숙소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란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귀빈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체면이 크게 구겨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거리 발사체에 따른 공중 공격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 및 군 당국자 20여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니야 암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박현준 기자

"네타냐후, 바이든에 '암살이 휴전 합의 앞당긴다' 주장"

가자지구 전쟁 대응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로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미 당국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하니예 암살 이튿날인 1일 통화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통화에서 하니예 암살이 휴전 합의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니예 사망으로 며칠 동안 휴전 협상 진전이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마스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 휴전 합의 타결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휴전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하니예 살해가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휴전 협상의 최종 단계 와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하니예가 암살됐다며 그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당국자는 전했다.

또한 하니예 암살 작전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되면서 자신이 막으려고 노력해온 더 넓은 지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니예 암살 작전을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미리 알려 계획을 절충하거나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전했다.

워싱턴 날씨 (°F)

8월 5일(월) 96~77

6일(화)	94~73		9일(금)	84~74	
7일(수)	78~70		10일(토)	84~71	
8일(목)	78~72		11일(일)	86~68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독점 $660,000
SOLD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VA 데이터센터 규제, 못하나 안하나

법안 고시 개정법률 몰라 또다시 표결 연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16일(화) 주민 청문회를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에 65명의 일반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변호사 등이 다수 참가해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30일(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문고시 법률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표결 날짜를 9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새 법률에 의하면 각종 법안 심리나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센터

표결 이전에 청문절차 고시 기준일을 표결 4일 전에서 7일 전에 변경됐는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왔는데 어제에야 비로소 실수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의 조례 기준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무작위로 허용해 세수 증대를 꾀할 목적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추진해왔었다.

다섯 시간 이상 지속된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라우던 카운티는 심지어 주택단지와 50피트 인접한 거리에도 데이터센터가 허가돼 소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주택예정지구(PRC) 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상업지구나 중밀집 산업기구 내에 허가하더라도 거주지역과 200피트 이상 혹은 최대 500피트 이상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는 특별 예외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500피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메트로역 주변 데이터센터도 0.5마일 거리제한을 1마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신종 공해산업으로 규정하며 아예 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허브로 손꼽히는 라우던 카운티 등에서도 공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가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덕에 주택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워싱턴지역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204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14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4기가와트 전력은 1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김옥채 기자

30년전 살인용의자, 체포 앞두고 자살

VA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30여년전 살인사건 용의자의 DNA 샘플을 확보하자, 용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와이 주립경찰국은 알버트 라우러 주니어(57세·사진 왼쪽)의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1991년 살해된 다나 아일랜드(사진)의 사체에서 발견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당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으로,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라우러 주니어는 검사 결과가 알려지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와이 경찰국은 라우러 주니어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미행을 거듭한 끝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버린 일회용 포크에서 DNA를 채취했다.

경찰당국은 이 DNA가 사체에서 검출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

의 자택을 방문해 면봉 등으로 DNA를 추가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100%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라우러 주니어가 기소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체의 질 속에서 검출된 DNA는 라우러 주니어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하와이의 성폭행범죄 공소시효 25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라우러 주니어가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선고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당초 이 살인사건은 알버트 슈와이처가 2000년 범인으로 체포돼 130년형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가 석방됐다.

DNA 분석기술이 발전해 사체에서 발견한 DNA와 슈와이처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범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슈와이처는 피해자가 함께 술집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됐다.

김옥채 기자

사무실 공실률 18% 역대 최고

MD 몽고메리 카운티 기업 이전 및 확장시 보조금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사무실 공실률이 치솟자 사무실 공실률 축소 법률을 제정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지난 1/4분기 사무실 빌딩 공실률은 18%로 통계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법률에 의하면, 몽고메리 카운티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기존 사업장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당국에서는 펜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크게 확대됐으나 펜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같은 패턴이 굳어져 사무실 공실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에반 글라스 카운티 의회 의장은 "원격근무 대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 늘어나고 도심과 준도심 지역의 유동인구가 늘어나야 인근의 식당과 커피숍 등 기타 근린생활시

설의 매출도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서 "우리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파일롯 프로그램으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최대 15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세용 기자

‘한인 모녀 살해’ 남편 오늘 법정출두

첫 심리, 검찰 “주말 쯤 기소”
검시국, 정확한 사인 조사중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40대 한인 여성과 영아가 숨진 가운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국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 남편에 대한 첫 심리가 2일(오늘) 정오 열린다.

남편 니콜라스 마이클버스트(44·사진)는 지난 29일 노스 시러큐스 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 침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김서린(44)씨와 영아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됐다.

마이클버스트는 당시 수사관들에게 아내인 김씨가 침실의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김씨가 얼굴과 머리에 추락과 일치하지 않는 둔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1일 덴버 검시국 에밀리 윌리엄스 공보관은 본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레지스 대학은 1일 현재 마이클버스트의 소개 페이지와 이력을 모두 내렸다. 마이클버스트는 지난 2014년부터 해당 대학에 영문학 부교수로 근무해왔다.

또한 김씨는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10년에 첫 영상을 시작으로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2년 5월 27일에 올린 피아노 영상을 끝으로 더이상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는 유튜브에 “작년 가을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피아노 연주를 포함해 내게 기쁨을 주던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몇 주 전, 마침내 건반의 먼지를 털어내고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노래를 녹음했다”고 썼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첫째 아기를 생후 3개월 때 잃었다.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검찰은 첫째 아기는 당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앤서니 산토스 덴버 검찰청 검사는 “이번 주말까지 혐의에 대한 정식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한인, LA필 ‘두다멜 펠로우’첫 선정

LA 출신 홀리 최, 1년간 활동
내년 5월 디즈니홀 공식 데뷔

1.5세 한인이 최초로 LA 필하모닉 ‘두다멜 펠로우’의 지휘자로 선정됐다.

주인공은 홀리최(한국명 최현·33·사진)씨다. 한인이 LA 필하모닉 ‘두다멜 펠로우’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지휘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씨는 앞으로 1년 동안 LA 필하모닉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최씨는10살 때LA로 이민을 왔다. 13세에 독학으로 클라리넷을 배우며 음악계에 입문했다. 그동안 독일을 기반으로 여러 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을 지휘하며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라 마에스트라’ 지휘자 콩쿠르에서 최종 6인에 선정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에서 부지휘자로 활동했고, 현재는 독일 실내악단 ‘앙상블 리플렉토르’의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 LA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LA 필하모닉 공식 데뷔 무대는 내년 5월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예정돼 있다.

최 지휘자는 “다른 음악가들보다 늦게 음악을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자랑스러운 한인 음악가가 되고 싶다”며 “한국에서 공연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여행도 장래 계획도 맘 놓고 짜기 어려워

기획 : 불안한 서류미비자

②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가족 장례식 못 가고 한국 가면 병역 부담
FAFSA 지원 제한 ‘장학금 꼭 받아야’ 중압감

“서류미비자요? 한인 중에도 많나요?”

정작 한인 커뮤니티에선 본인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한인들의 경우, “강경 보수 이민정책도 한인들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서류미비자 한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들어봤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 장례에도 참석 못 했다”**=2004년,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누나와 미국으로 온 한인 남성 이모(30) 씨. DACA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해도 그는 반신반의했다. 이 씨는 “서류미비자 정보만 빼낸 뒤 추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신청했다”고 말했다. DACA 수혜자로서 직업을 찾긴 수월해졌지만, 여행의 자유는 남의 얘기였다. 2014년, 한국에 남아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여행허가(Advance Parole)는 신청하지 못했다. 여행허가를 받아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어서다. 한국을 방문할 경우, 한국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병역 문제도 또 다른 문제였다.

▶**“‘내 나라’인 미국 떠나는 고민 늘 따라다녀”**=15살에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이민 온 차모(35) 씨. 그의 어머니는 당초 투자비자로 정착할 생각이었지만, 차질이 생겨 케이스가 멈추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DACA 수혜자가 됐을 때 가장 기뻤던 점은 일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서류미비자 청년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산다고 밝혔다. 차 씨는 “미국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미국을 떠나는 고민을 하고 서둘러 군대에 가거나 결혼을 하려는 등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했다.

▶**“커리어 계획 어려워”, “장학금 부담 컸다”**=2005년, 15살에 미국으로 온 장정래(34) 씨. 그는 아직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발표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을 다니다 DACA 수혜자가 된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 후 커리어를 계획하기가 어려웠다. 장 씨는 “극우 이민정책은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 차별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더 많은 한인이 이민정책 영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로펌에서 장학금을 받는 형태로 인턴 중인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다고 했다. 그가 로스쿨에 진학한 이유도 뉴욕·뉴저지주에선 서류미비자의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서다. 그는 “서류미비자 중엔 (강제) 고학력자가 많다”며 웃었다.

▶**“어딘가에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잃어버린 기분”**=서류미비자 김성원(28) 씨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22~23살 때로 회고했다. 그는 과거 유효한 비자가 있어 DACA 수혜자가 될 수 없었다. 대학 때까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졸업했던 2018~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낸 강경 반이민 발언은 그의 걱정을 키웠다. 김 씨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인턴십을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우려하는 마음이 컸다”며 “친구라도 과연 내 신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나와 (이민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의문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거쳐 현재 민권센터에서 서류미비자로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한인을 돕는 데 열중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가격 급등에 이젠 커피도 사치품

원두값 13년래 최고치
기후 악화로 공급 감소

패스트푸드에 이어 커피도 사치품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페스트푸드 체인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며 사치품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체재가 거의 없는 커피의 원두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면서 커피도 사치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7월 커피 원두 가격은 파운드당 2.27달러에 근접하면서 지난 13년 사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악화로 인한 공급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라비카 원두의 경우, 브라질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브라질에서 가뭄과 서리 한파 등 악천후로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에 미국의 아라비카 커피 원두 선물은 같은 해 최고점인 파운드당 2.6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예년 가격인 1~1.4달러를 한참 웃도는 가격대로 굳어졌다.

아라비카보다 저렴한 로부스타 원두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더해 로부스타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의 기후 악화로 공급이 위축되며 상승세를 부추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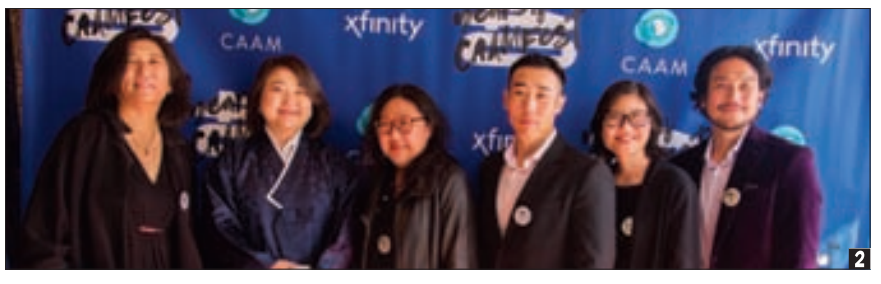
다만,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스타벅스의 커피 값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타벅스는 고정된 가격으로 원두를 대량으로 사전구매하기 때문이다.

서재선 기자

"이철수 사건 미국 역사에 기록 남겨 기뻐"

인터뷰 줄리 하 공동감독

에미상 최우수 다큐 후보 '이철수에게 자유를'



1 1983년 3월 28일 이철수씨가 무죄로 석방된 후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2 지난 2022년 5월 12일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참석한 '이철수에게 자유를' 제작팀이 함께 했다. 왼쪽부터 진 시엔·소나 조·수 김 프로듀서, 세바스찬 윤 나레이터, 줄리 하·유진 이 감독. [밥 시앙·그랜트 딘 제공]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이 최근 후보작들을 발표한 가운데, 살인자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한인 이철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철수에게 자유를(Free Chol Soo Lee)'이 뉴스·다큐멘터리 에미상 최종 후보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45회 뉴스&다큐멘터리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Best Documentary)', '뛰어난 역사적 다큐멘터리(Outstanding Historical Documentary)', '뛰어난 홍보물(Outstanding Promotional Announcement)'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이다. '뛰어난 홍보물' 부문은 다큐멘터리 독립렌즈 필름 티저용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19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21살의 한인 이민자 이철수의 삶과 경찰과 사법부가 자행한 인종 차별에 맞서 '이철수 구명운동'을 벌인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문 매거진 코리앰 저널의 편집장 출신인 줄리 하 감독과 뉴욕타임스 등의 영상을 제작했던 유진 이 감독이 공동감독·연출한 이 영화는 저널리스트 출신답게 사건 기록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이철수라는 인물을 통해 커뮤니티에 주는 메시지를 묵직하게 담아내 주류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줄리 하 감독은 지난달 26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해온 사진과 필름, 기록 등을 기꺼이 제공해준 한인 커뮤니티에 공을 돌린다"고 팀을 대신해 인사말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에미상 후보로 1개도 아닌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스럽다.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팀은 '작은 영화가 해냈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를 공동 감독/프로듀스한 유진 이 감독에게 가장 감사하다. 또 함께 한 수 김, 진 시엔, 소나 조 프로듀서 등 팀원들도 빼놓을 수 없다. 후보에 올랐으니 상을 하나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조금 있다. (웃음) 결과가 너무 기대된다."

-하 감독에게 에미상 후보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가 우리 영화를 알게 됐다는 점이다. (웃음) 솔직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인과 아시안들의 역사가 미국 역사에 길이 남고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 후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동기는.

"살인죄를 뒤집어쓴 청년 이철수가 무죄로 석방되는 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아시안 커뮤니티의 단합된 힘과 목소리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철수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의 중요한 역사다. 그런데도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묻혀있었다. 우린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영화 제작에 꼬박 6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자료 찾는 게 막막했는데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이 컸다. 중앙일보를 비롯해 당시 신문 스크랩, 사진, 비디오 등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분들이 많았다. 이분들의 기증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영화를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영화는 커뮤니티가 영감을 주었고 가능하게 했다. 팀을 대표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한인 커뮤니티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팀은 선댄스 영화제부터 PBS의 '인디펜던트 렌즈'로, 그리고 지금은 에미상 후보 지명까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이철수와 또 그가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 영감을 준 대담하고도 용기있으며 정의로운 운동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 영화가 새로운 세대에게 정의를 위해 맞서고 오늘날의 '이철수'를 도울 수 있는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 장연화 기자

상업용 부동산 침체 가속… 건물들 헐값 매각

가스컴퍼니타워 4억불 내려
20년전 가격의 1/40 폭락도
높은 공실률과 고금리 영향

대도시의 초대형 오피스 건물이 헐값에 팔려 나가며 상업용 부동산(CRE)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LA타임스(LAT)는 LA카운티 정부가 다운타운에 위치한 52층 상업용 건물 '가스컴퍼니타워'를 2억1500만 달러에 매입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보도했다.

1991년에 완공돼 대표적인 고급 상업용 건물로 이름을 알려왔던 이 타워는 140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오피스 공간을 갖추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오기 전인 2020년 평가 가치는 6억3200만 달러나 됐다. 하지만 4년 사이에 가치가 3분의 1로 폭락했다.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지난해 건물 소유주인 브룩필드 프로퍼티스가 4억6500만 달러의 빚을 견디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메리츠 대체투자운용 또한 해당 건물의 대출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정부 측은 "건물 매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다만 LA카운티의 가스컴퍼니타워 매입이 성사되려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날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건물 구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실제로 매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맨해튼의 23층 오피스 건물도 20년 전에 비교해 40분의 1 가격으로 매각됐다. UBS 리얼티 인베스터스가 소유한 맨해튼 50번가의 건물의 지난달 31일 경매 낙찰 가격은 850만 달러였다. 2006년 매매가(3억3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97.5%의 건물 가치가 사라진 셈이다.

해당 빌딩이 경매에 나온 이유는 65%에 달하는 공실률 때문으로 알려졌다.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분리된 가운데 건물주가 토지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LA카운티 정부가 LA다운타운의 가스컴퍼니타워 매입에 나섰다. 이 건물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침체로 가치가 4년 전보다 3분의 1로 떨어진 상태다. 사진은 가스컴퍼니타워 전경. 박낙희 기자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치솟은 공실률 때문에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늘어난 이자 부담이 채무불이행이나 건물 압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정보제공업체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의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는 205억5000만 달러였다. 이는 2015년 3분기(275억 달러)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올해 1분기에 비해서도 13% 올라간 수치다.

문제는 압류 자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장정보업체 트렙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자가 쌀 때 빌렸던 대출이 만기가 되고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조원희 기자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 dc.thekoreadaily@gmail.com

"AI로 맞춤형 광고" 호실적에 활짝 웃은 메타

2분기 매출 390억7000만불
4분기 연속 20% 넘는 성장
광고 수익 호조…VR은 적자

메타가 지난달 오픈 소스로 공개한 최신 AI 모델 라마 3.1. [로이터]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맞춤형 광고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메타는 지난 2분기 매출이 39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메타의 매출은 4분기 연속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당 순이익(EPS)은 5.16달러다. 모두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383억 1000만 달러, 4.73 달러)를 뛰어넘는 실적이다.

핵심 사업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앱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주효했다.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메타가 발표한 2분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앱 일일활성사용자수(DAP)는 32억70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 수준이다. 그럼에도 광고 수익이 늘어난 것에 대해 메타는 "AI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기술 기반 광고 타겟팅 기능은 2021년 시행한 애플의 ATT(앱 추적 투명성) 정책이 메타의 매출에 끼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고 분석했다.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앱의 활동 추적을 허용한 ATT 정책은 메타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2022년 메타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익 손실을 보고한 바 있다.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VR)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는 44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상치(45억50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0년 하반기 이후 이 부문 손실은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또 메타가 최근 텍사스주와 합의한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 비용 14억 달러도 2분기 전체 비용에 포함됐다.

다른 빅테크들과 마찬가지로 메타의 주요 관심사 역시 AI다. 2분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메타의 자본 지출은 84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했으나, 앞서 실적을 발표한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보다 지출 확대 정도가 크진 않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분기 자본 지출이 1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4% 늘었다고 밝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자본 지출 역시 전년 대비 77.6%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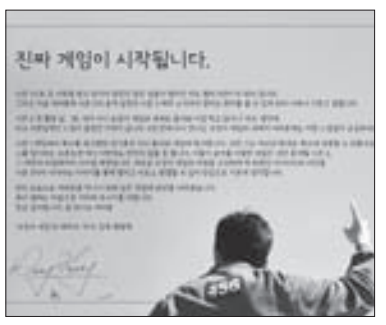
구글과 MS가 실적 발표 후 시간외 주가가 하락한 것과 달리 메타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등했다. 가디언은 "알파벳·MS는 최근 발표한 실적에서 AI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지출을 정당화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메타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긍정적인 AI 투자가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크 저커버그 CEO(최고경영자)는 실적발표 성명에서 "우리는 강력한 분기를 보냈고, 메타 AI는 연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는 지난달 23일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6000개를 이용해 학습한 최신 AI 모델 라마 3.1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열린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대담(컴퓨터 그래픽스 콘퍼런스)에서 "모든 사용자가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어환희 기자

'오징어 게임' 시즌2, 12월 26일 공개

황동혁 감독 공식 발표
시즌3 제작 소식도 전해



오징어 게임 시즌2와 3를 예고하는 황동혁 감독의 편지.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새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오는 12월 26일 공개를 공식화했다. 또한 2025년 시즌3 공개까지 알렸다.

1일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라는 간결하지만 가슴 뛰게 만드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를 통해 시즌2와 시즌3를 선보이는 소감을 전했다.

황 감독은 "여러분께 시즌2의 공개 일정과 시즌3 제작 소식까지 알리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설렌다"며 "시즌1 엔딩에서 복수를 예고했던 성기훈은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한다. 과연 그는 자신의 말대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보여줄 치열한 대결은 내년 공개될 시즌3, 그 대망의 피날레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새로운 '오징어 게임'의 여정을 구상하며 싹 틔웠던 아이디어의 씨앗을 시즌3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펼치고 비로소 완결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남은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징어 게임' 새로운 시즌의 공개 일정과 함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기훈(이정재)의 스틸도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시즌1의 마지막, 미국행 비행기 탑승 직전의 모습과 달리 짧아진 검은 머리로 456번 번호가 달린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기훈의 모습은 그가 다시 시작될 게임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이정재를 포함해 시즌1에서 돌아온 이병헌, 위하준, 공유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다윗, 최승현, 노재원, 조유리, 원지안 등 더욱 강렬해진 앙상블로 돌아온다.

이지영 기자

한국차 판매 두 달 연속 하락

7월 13만8976대…3.4% 감소
현대차 HEV 호조에 4% 증가
기아 10.4%↓·제네시스 2.2%↓

한국차 판매가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일 발표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 7월 판매 실적 보고에 따르면 총 13만8976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4%가 감소했다. 〈표 참조〉 지난 6월에도 4.6%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높은 오토론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딜러들이 사용하는 판매·재고관리 시스템인 CDK 소프트웨어에 대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으로 딜러에 따라 7월 초까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호조를 보이며 6만9202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4.0% 신장률을 달성하며 한국차 중 유일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67% 늘어난 HEV를 선두로 전기차(EV), 플러그인(PHEV) 등 친환경 차량이 소매 판매의 25%를 차지하며 판매 신장을 견인했다.

차종별로는 투싼 HEV가 109% 증가한 것을 포함해 싼타페 HEV(+75%), 엘란트라 HEV(+13%), 팰리세이드(+50%) 등이 역대 7월 판매 신기록을 수립했다. 신형 쏘나타도 79% 급증했다.

기아는 전동화 모델이 선전했음에도 6만3580대 판매에 그치며 전년 동월 대비 10.4%가 하락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아북미판매법인은 전체 판매량 중 SUV 등 유틸리티 모델이 76%, 전동화 모델이 18%를 차지했으며 전동화 라인은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SUV 모델인 셀토스와 스포티지가 역대 7월 판매 기록을 경신했으며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제네시스도 6194대를 판매해 2.2%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GV80이 27% 증가하는 등 SUV 라인업이 역대 7월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으나 G80, G70 등 세단이 각각 38%, 35% 감소하며 실적 반등의 발목을 잡았다. 전기차도 GV70 EV는 82% 급증했으나 G80 EV가 89% 급감하며 부진을 보였다. 한편, 혼다는 10만955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9.9%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월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스바루 역시 전년보다 2.6%가 증가한 5만1702대를 판매하며 24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마쓰다도 3만9866대로 30.2%가 급등하며 역대 7월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럭셔리 브랜드 애큐라는 1만1186대 판매에 그치며 7.3% 감소했다.

박낙희 기자

판매 호조를 기록한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왼쪽)와 기아 스포티지. [각 업체 제공]

한국차 브랜드 2024년 7월 판매 실적

브랜드	모델	2024	증감율(%)
현대	엘란트라	13,764	16
	아이오닉5	3,416	-17
	아이오닉6	778	-55
	코나	6,713	+10
	넥소	2	-94
	팰리세이드	8,635	+50
	싼타크루즈	2,615	-10
	싼타페	8,989	-15
	쏘나타	5,755	+79
	투싼	16,135	-8
	베뉴	2,400	-7
	합계	69,202	4.0
기아	EV9	1,815	N/A
	EV6	1,547	-20
	리오	1	-100
	포르테	10,448	-5
	K5	4,713	-24
	스팅어	N/A	N/A
	쏘울	3,428	-33
	니로	2,674	-14
	셀토스	5,481	4
	스포티지	12,628	7
	쏘렌토	7,206	-16
	텔루라이드	9,082	-7
	카니발	4,557	-14
	합계	63,580	-10.4
제네시스	G70	850	-35
	G80	250	-38
	G80 EV	24	-89
	G90	112	4
	GV60 EV	296	13
	GV70	2,483	3
	GV70 EV	198	82
	GV80	1,908	27
	GV80 쿠페	73	N/A
	합계	6,194	-2.2
3사 판매량 합계		138,976	-3.4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든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

페어팩스 한인교회 임직식

페어팩스한인교회는 "축복의 근원, 섬기는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란 비전을 가지고 지난 32년간 양광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5월에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을 다하신 분들을 임직자로 세우는 이 귀한 임직식에 워싱턴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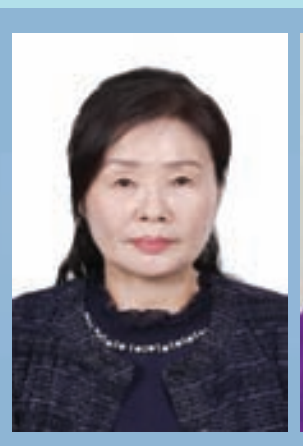
임직자

장로장립: 조신형, 허인수, 문정오
권사임직: 김진주, 신상숙
안수집사임직: 김진업, 김규오

장로 조신형

장로 허인수

장로 문정오


권사 김진주

권사 신상숙

안수집사 김진업

안수집사 김규오

일시 2024년 8월 11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페어팩스 한인교회

양광호 목사

최일승 목사

〈교회소개〉

페어팩스한인교회는(Fairfax Korean Church) 버지니아 Fairfax County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한인장로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구원 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인 본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처음 오신 한분 한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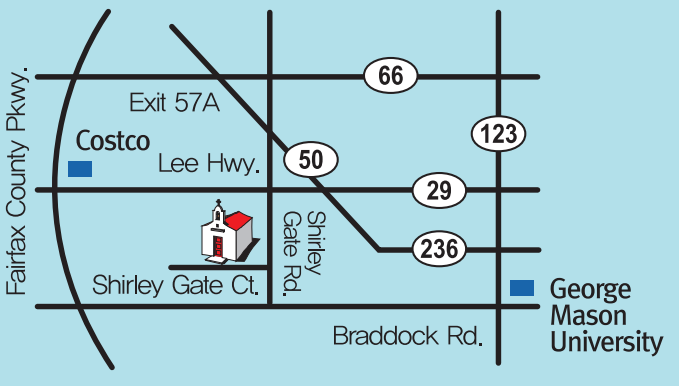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저녁 8시
금요기도회	금요일(격주)	저녁 9시

페어팩스 한인교회

동사목사 : 양광호, 최일승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703-352-0855, 703-691-4309 www.fairfaxchurch.org



남부 국경 몰려가는 중국인들…"트럼프 복귀땐 더 힘들어져"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으로 입국하는 길은 더욱 좁아졌지만, 중국의 이민 희망자들은 우회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을 향하는 중국인들

지금껏 미국으로 가려는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남미에서 에콰도르를 첫 목표지로 삼은 뒤 이후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선택했다. 에콰도르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지난달부터 중국과의 무비자 체류 협정 효력을 중단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불법 이민자의 경로를 차단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압력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인은 3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수치인 1천500명의 20배가 넘는 수치다. 이후 일부 중국인들은 에콰도르 대신 아직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볼리비아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볼리비아 정부도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허가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 라파스에서 중국인 이민 희망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한 중개인은 "최근 이집트와 터키에서 볼리비아행 비행기를 탄 중국인 고객 10명이 전부 입국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8명은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유효한 호텔 예약을 제시하지 못해 비행기에 타지 못했고, 나머지 2명은 볼리비아 출입국 관리들의 심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운 좋게 무비자 입국에 성공하더라도 볼리비아는 에콰도르보다 훨씬 남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경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진다.

이에 따라 미국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행 비행기를 타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멕시코의 출입국 관리들도 일본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을 경유했지만 멕시코 입국이 거부된 한 중국인은 "다음엔 다른 남미 국가를 통해 미국 입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국인들은 수리남에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를 거치는 위험한 경로를 짜거나, 쿠바에서 조각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다만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되살린다면 다른 경로들도 막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입국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난민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텍사스에서 전세기를 통해 116명의 중국인 불법 이민 희망자들을 중국으로 되돌려보냈다.

볼리비아에서 중국인 불법 이민희망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한 중개인은 "우회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민행렬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1면 '펜실베이니' 에서 이어집니다

반면에 해리스의 강점인 민주주의, 낙태 이슈는 후순위다. 특히 향후 득표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호감도도 트럼프(45%)가 해리스(44%)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비호감도는 53%로 같다.

최근 재개된 트럼프의 막말 공세가 러스트벨트를 염두에 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해리스를 겨냥해 "인도계라더니, 갑자기 흑인으로 변신했다"며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갈라치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백인 남성 비율이 높은 이곳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해리스의 인종적 정체성을 애매하게 만들어 상대의 표 결집을 막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슈멀 교수는 "편 가르기는 전국적 지지율 확보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5일 공식 후보 수락과 함께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의 러닝메이트 인선은 선거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밴스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36%에 불과하다. 반면에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호감도는 52%로, 44%인 해리스보다 높다.

백중세를 보이는 러스트벨트 경합주에 비해 남부 선벨트의 판세는 현재까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RCP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네바다의 최근 여론조사 평균값은 각각 49% 대 44.8%, 47.5% 대 43.5%로 트럼프가 우세하다. 다만 향후 두 주에 급격히 늘어난 히스패닉 인구(전체의 약 30%) 등이 해리스를 얼마나 지지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나이·인종·성별·경력·이념·정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어 두 후보의 대결이 치열한 '문화전쟁(Culture war)'의 모습을 띨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해리스는 지난달 30일 첫 대선 광고에서 자신을 '겁 없는 검사'로 내세우며 트럼프의 '중범죄자' 이미지와 대비시켰다. 반면에 트럼프는 "해리스는 나라를 망칠 급진좌파 미치광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여기엔 무당파·부동층을 설득해 표를 더 얻는 대신 상대방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해리스는 낙태권 이슈를 통해 반(反)트럼프 전선 구축에 나섰다. 트럼프는 "해리스는 실패한 국경 차르(Border czar)"라며 불법이민 문제의 책임이 해리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엔 "미친(crazy) 해리스는 인종적 정체성 등을 이용하는 완전한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백인·남성·블루칼라로 상징되는 '성난 백인'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일 수 있으나, 이런 공격은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이승호 기자

올림픽 '최후의 만찬' 논란, 교황청도 뿔났다

바티칸 교황청이 지난달 26일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과 관련,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3일 프랑스어 보도자료에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특정 장면에 슬픔을 느꼈다"며 "며칠간 계속된 문제제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타인에 대한 경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을 패러디한 지난달 26일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위 사진). [사진 X]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선 드래그퀸(여장 남자)과 트랜스젠더 모델, 가수 등이 예수의 사도 역할을 맡아 긴 식탁을 둘러싸며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포스산에서 그리스 신들의 잔치를 상징한 장면이라고 해명했으나, 지난달 28일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막식 영상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한지혜 기자

"메타, 유명 배우 목소리 사용 논의…AI 비서에 장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명 배우 및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자사의 AI 모델에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영국 유명 배우인 주디 덴치와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유명 배우 아콰피나 등과 그들의 목소리 사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주디 덴치는 영국 출신 배우로 영화 007에서 보스인 'M',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엘리자베스 여왕 역을 맡았으며, 아콰피나는 영화 '페어웰'과 '퀴즈 레이디' 등에 출연했다.

메타는 또 미국 유명 성우이자 코미디언인 키건-마이클 키 등 다른 유명인들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이들의 목소리를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메타 AI'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메타 AI는 메타가 지난해 7월 처음 공개한 AI 비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모든 소셜미디어(SNS)에 탑재됐다.

현재 텍스트 위주의 이 메타 AI에 음성 기능을 담아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대화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내달 개최하는 연례행사 '커넥트'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수백만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신 AI 모델인 '챗GPT(ChatGPT)-4o'에서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비슷한 목소리를 사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후 "메타 AI는 연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CUCKOO

8월
마지막 여름 혜택

기간 7.30.2024 - 8. 28.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8월 내 설치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신제품으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일시불 구매 최대 **30% 할인 & 쿠쿠 신제품 증정**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1건 : 30% 할인 + 바비큐 그릴 팬 증정
2건 이상 : 30% 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프리미엄 + 일반 제품 구매시

최대 30% 할인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 가격 다름

렌탈시 **다운페이 면제** & 쿠쿠 신제품 증정

1건 **일반제품** : 바비큐 그릴 팬 증정
프리미엄 제품 : 에어 서큘레이터 증정

2건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3건 이상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쿠쿠 시그니처 정수기 **마지막 특별 할인**

렌탈 계약시

다운페이 면제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렌탈 건수에 따라 다름

일시불 구매시

인상전 가격과
추가 할인 혜택까지!

CP-P011G

신제품 안마의자 **런칭 이벤트**

4D 제품 $2,000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렌탈시

다운페이 $500 할인

*3D제품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왼쪽은 함께 오찬장으로 가는 곽규택 의원. [뉴스1]

여당 대표 친정체제 스타트 한동훈표 쇄신 본격 시험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인선이 5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무리된다. '한동훈표' 당 쇄신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윈외 대표라는 한계와 반한(反韓) 세력의 견제라는 암초는 여전히 내재돼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전략기획부총장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전략통'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신임 홍보본부장은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대변인단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정광재 캠프 대변인이 선임대변인으로 합류한다.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된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유임된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된 홍영림 전 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는 대구·경북(TK) 지역 4선 김상훈 의원을 내정했다.

'친한동훈' 인사를 중용한 한 대표는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전당대회 때부터 예고한 지구당 부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이 대표적 어젠다다. 특히 한 대표는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으며 당원을 관리하는 정당 지역 조직이다. 1962년 도입됐다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다.

당선 직후부터 민생 현안이나 국민적 공분을 자극한 이슈 등에 목소리를 내온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기간 2년 추가 연장 등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도 걸고 있다.

다만 '한동훈표' 정책의 입법이 여야 대치 상황에서 표류할 경우 원외 당 대표로서 리더십의 한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구당 부활'은 친윤계는 물론 한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반한(反韓)을 보듬고 관계 설정을 잘해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중진 의원들과 연쇄 오찬 회동 등을 갖는다.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4일 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뉴스1]

'확대명'에 최고위원도 요동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김민석, 정봉주 꺾고 1위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기 위한 호남 경선에서도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확인됐다. 민주당은 4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마쳤다. 이재명 전 대표는 광주 83.6%, 전남 82.5%를 확보해 누적 득표율 87.0%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전북 순회경선에서도 84.8%를 득표하며 무난히 1위를 유지했다.

호남 3개 지역 권리당원은 약 41만 명으로 전국(123만 명)의 3분의 1에 달해 전당대회 결과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꼽혔다. 다만 이 전 대표 득표율이 호남에선 80% 초·중반대로 떨어지면서 90%대를 유지했던 누적 득표율은 80%대로 내려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는 '일베'(극우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사회'를 "우리 미래"라고 한 이 전 대표는 "극단적 갈등과 경제체제 위험으로 대공황 같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공평한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누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지옥일지, 천국에 가까울지는 스스로 준비하기 달려 있다. 민주당이 그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8명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는 호남에서 1·2위가 바뀌는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김민석 후보가 그간 1위를 유지해 온 정봉주 후보를 지난 3일 누적 득표율에서 역전한 데 이어 4일 격차를 더욱 벌렸다. 김 후보는 3일 전북(19.0%), 4일 광주(17.4%)·전남(17.4%)을 합산해 누적 득표율 17.6%를 기록했다. 정 후보는 전북(13.3%)·광주(11.6%)·전남(12.1%)을 합산해 누적 득표율 15.6%였다. 김 후보의 약진 배경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지지자들 앞에서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나"라고 말했다.

'광주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를 내세운 민형배 후보도 광주·전남에서 선전했다. 민 후보는 4일 광주(27.8%)·전남(21.7%)에서 득표율 1위를 하며 누적 득표율 12.3%를 기록했다. 이날 투표 결과 김·정 후보에 이어 한준호(13.8%), 전현희(12.6%), 민형배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은 경기(10일)·대전·세종(11일)·서울(17일)에 이어 18일 온라인 투표를 못 한 권리당원 ARS 투표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광주=성지원 기자

회동도 안 하는 여야 원내대표

'협력적 맞수' 원내대표조차 불통, 일방통행 정국 낳았다

여의도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야당 입법 강행→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야당 강제 종료 및 단독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악순환에 여야 간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소통의 마지노선인 여야 원내대표조차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점심을 함께한다. 세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건 지난 6월 5일 우 의장 선출 이후 두 번째다. 우 의장 취임 이후 한 달 넘게 같이 밥 한술 뜨지 못했던 세 사람은 지난달 22일에야 첫 식사를 함께하며 '매주 월요일 점심'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 4법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식사 한번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이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공개로 간간이 이어져 왔던 여야 원내대표 간 양자 회동도 지난달 4일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거의 끊겼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이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서로 간 일방 통보의 장이 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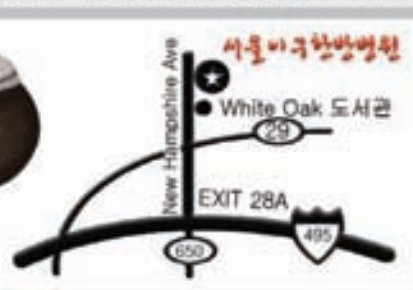
카메라 앞에선 얼굴 붉히며 언쟁하더라도 뒤에선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으며 막힌 정국을 뚫어왔던 게 그간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이었다. 2015년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가 별세하자, 과거 여야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나는 한 마리 짝 잃은 거위"라며 "우린 공격적 맞수가 아닌 협력적 맞수였다"고 회고했다. 21대 국회 초반이었던 2020년 6월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담판을 위해 강원도 한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선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뒤 백령도행을 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야 간 대화 절벽의 본질은 신뢰 상실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인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의 지시사항만 철저히 이행했다"고 한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서로 상대 원내대표를 겨냥해 '협상 권한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상 이전보다 더 강성인 지도부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지적해 오던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종료를 계기로 원내 채널 외에도 한동훈-이재명 당 채널을 가동해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당 대표 입장에서도 협상력과 정치력을 보여줄 좋은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이구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SELFOTO STUDIOS
www.Selfotostudios.com

추석맞이 감사 축제

"뿌리와 날개"

이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1세대의 희생으로 교육받은 지식인으로
날개를 단 젊은 우리들, 공활한 가을 하늘을 힘차게 날자!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장 : 한기덕 (전 메릴랜드 한인회장)
준비위원장 : 박수철

일시: 2024년 9월 22일(일) 오후 12시~9시

장소: Jim Rouse Theatre and Performing Arts Center
5460 Trumpeter Rd., Columbia, MD 21044

1부 국악과 태권도의 향연 Fantasy of Korea
주상희 무용단, 이희경 무용단,
징검다리, 풍물패 한판

특별초청공연
마하무 궁중 무용단 외 무용단 2팀 /24명 연주팀 /10
- 한국무용 전공자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들로 구성된 무용단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

2부 K-Pop & 트로트의 향연 K-Pop Night
K-Pop 컨테스트 입상자들.
지역 K-Pop 가수 및
각급 학교 커버댄스 그룹,
지역 트로트 가수

부대행사 어린이 사생대회
한국문화 전통 놀이 체험, 한복 입기, 재롱 잔치, 가족 사진관, K-뷰티 메이크업 샵, 그림 그리기 등등

후원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부스: $1,000 / $500
Sponsor: 플래티넘 $2,000 / 골드 $1,000

메릴랜드한인회 Korean Society of Maryland
. 회장 안수화 이사장 이세명 . 수석부회장 김영후 부회장 정선의
9256 Bendix Rd. #206, Columbia, MD 21045
Tel: 410-772-5393
E-mail: infokoreanmd@gmail.com

해발 1200m 배추도 타죽었다

'에어컨 없는 도시' 태백은 옛말
"5~6년 전부터 폭염·열대야 덮쳐"
매년 배추 출하 줄어 올핸 더 심각
고랭지 30% 이미 배추농사 포기
올 7월 기온, 관측 40년래 가장 높아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1일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의 고랭지배추단지. 폭염에 망가진 배추들이 노랗게 죽어 있다. 태백=정은혜 기자

해발고도 1200m가 넘는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인근. 40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밭의 농민들은 최근 '열받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서늘하다는 이곳에도 폭염이 닥쳐 배추들이 8월 출하기를 앞두고 노랗게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정만(58)씨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것도 지금 다 썩고 있는 상태"라며 "기후변화로 매해 출하량이 줄어 작년에는 30%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더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지난 1일 태백시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전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폭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던 태백시도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올여름 태백시는 1985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가장 높은 7월 기온(23.9도)을 기록했다.

이 탓에 한국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매봉산 경작지도 고랭지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40만 평 중 30%가량이 휴경에 들어갔다고 한다. 35년째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지었다는 이모씨는 "지금 배추 절반은 망가졌고, 폭염을 일주일만 더 맞으면 전부 버리게 될 것 같다"며 "내일부터 조기 출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출하량은 점점 줄고 경매가도 내려가 (생계가) 너무 어렵다. 몇 년 전부터 배추 농사를 그만두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 자연재해보험이 있긴 하지만, 폭염은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몇 년 내로 고랭지 농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태백시 관계자는 "폭염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은 아직 없다"며 "현재 병해충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이라, 시에서는 방재를 돕는 측면에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랭지 배추와 함께 태백시에 닥쳐온 또 다른 변화는 에어컨이다.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태백시에서 최근엔 에어컨 설비업체가 가장 바쁜 업종이 되고 있다. 11년째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이영애(51)씨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5~6년 전 태백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자,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태백 사람들이 깜짝 놀라 에어컨을 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태백시 주민들도 "에어컨 없는 도시는 옛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내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장금옥(75)씨는 "태백에 30년 살았는데, 3년 전에 에어컨을 달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는 집이 거의 없었는데, 3년 전부터는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태백=정은혜 기자, 천권필 기자

'자율구조조정' 채권자만 11만명, 티메프 직원 이탈로 연락부터 난항

티메프, 채권자 많고 채무구조 복잡
업계 관계자 "협의 불가능한 상태"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었지만, 11만명에 달하는 채권자와 접촉하는 일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기업인 큐텐의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이커머스까지 계열사가 각자 살길을 모색하면서 내분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회생법인이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난 2일 승인하면서 구조조정 조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4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판매자(채권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가 11만명에 달하고 일반 판매자(셀러) 등 비금융권 채권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두 회사 직원 상당수가 이미 빠져나갔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회사 간 원활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채권자들과 협의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티메프의 ARS 성공 전망은 밝지 않다. 김기홍·우상범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지난 4월 한국법학원 학술지에 낸 논문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에 따르면 201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3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22건이다. 이중 절반도 안 되는 10건(45%)만 합의에 이르렀다.

두 판사는 합의 사례 10건의 성공 요인으로 ▶채권자가 10명 미만 소수거나 금융권 ▶신청 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일시적 ▶채권자가 ARS에 우호적 ▶기간 내 신규 자금 조달 성공 등을 꼽았다.

큐텐 그룹 내부 사정도 악화일로다. 계열사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매각을 추진하며 독자노선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큐텐 측에 받지 못한 미수금 650여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도서, AK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큐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티메프 역시 독자노선을 공식화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지난 2일 법원에 출석해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구 대표 해결책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연락을 돌리고 있다. 매각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장주영·김준영·석경민 기자

여주 40도 … 주말까지 질식폭염

〈점동면〉

양평 39.3도, 서울 36.2도 올 최고
2018년 홍천 41도 기록 깰 우려
이틀새 온열질환 최소 3명 사망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5년 만에 낮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은 4일 오후 3시33분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4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WS 기온이 40도를 돌파한 건 2019년 8월 5일 안동시 이후 5년 만이다.

기온이 치솟으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경남 등 전국에서 온열질환 관련 사망자가 잇따랐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관중이 119 구급대에 실려 가기도 했다.

여주시 AWS의 기록은 공식기록(대표 관측소 기온)이 아니다. 공식기록으로 40도를 넘은 것은 '최악의 폭염'으로 불리는 2018년과 1942년 두 차례였다. 하지만 폭염 예상 기간이 아직 일주일 이상 더 남아 있어, 기상학계에서는 기온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8년엔 강원도 홍천이 역대 최고인 41도를 기록하는 등 북춘천·충주·양평·의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이전까지는 1942년 8월 1일 대구의 40도가 최고 기록이었다.

4일 여주의 뒤를 이어 양평(39.3도), 안성(38.7도), 용인(38.6도) 등 경기권의 낮 기온도 38도를 넘어서며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대표 관측소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2도를 기록하며 올해 서울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인근, 제주도 산지를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경보를 내린 상태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은 12일, 강릉은 17일, 제주는 20일 연속해서 폭염특보(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열대야도 서울이 14일째, 강릉은 16일째, 제주는 20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폭염이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당시처럼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은 상태인데다, 당분간 두 거대 고기압의 변동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 이재정 부장은 "폭염이 이번 주에 절정을 이루고 곳곳에서 '40도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6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지만, 소나기가 지나가면 습도가 올라 체감온도는 더욱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서태평양에서 발달하는 태풍의 크기와 이동 경로에 따라 폭염이 심해지거나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찜통더위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3일 오후 4시54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밭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체온은 41도였고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대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밤 숨졌다.

같은 날 오후 창녕군 창녕읍과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서도 각각 70·80대 여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에서 총 154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연안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제주에선 중국발 저염분수까지 유입되며 양식장 5곳에서 광어 3600여 마리가 폐사해 5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경보다. 저염분수는 염도가 26psu(실용염분단위) 이하인 바닷물을 뜻한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1psu는 바닷물 1㎏당 녹아 있는 염분이 대략 1g쯤 된다는 의미다.

제주에선 지난달 30일 마라도 기점 남서부 28마일 부근에서 염도가 26psu인 물덩어리가 관측됐다. 평년 여름철 제주 바다 염분 농도(30~32psu)보다 최대 6psu 낮은 염도다. 최근 중국 남부지방 집중호우 등으로 양쯔강 방류량이 늘면서, 이런 저염분 물덩어리가 해류와 바람을 타고 제주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정은혜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703-598-3316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척추 디스크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1·2인자 '가교 전문' 정진석 … 14년만에 또 여권 분열 막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을 혹평하는 인사들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었다"는 표현을 쓰곤 했다. 정치적 유연성 대신 법적 타당성을 고려해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년 동안 회담하지 않았던 건 그런 통치 스타일의 단면이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뒤 중용한 인물이 정진석 비서실장이다. 관료 출신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달리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임명 때부터 '정무형 비서실장'이라고 불렸다.

그런 정 실장의 진가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90분 회동에서 드러났다. 총선과 7·23 전당대회를 거치며 윤·한 갈등이 증폭됐다는 징후가 커졌지만 지난달 24일 대규모 만찬과 정 실장이 배석한 3인 회동이 조기에 성사되며 당정 분열의 우려는 불식됐다. 회동 이틀 만에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며 친윤계와 친한계의 감정 소모전도 소강 상태를 맞게 됐다.

정진석

정 실장은 3선 의원 시절에도 여권 분열의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를 맡았었다. 2010년 7월 금배지를 떼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긴급 투입됐을 때다.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무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개편과 개각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자 친이계가 "항복하는 사람 등에 칼을 꽂았다"고 하는 등 분당 우려마저 나오던 상황이었다. 정 실장은 부임 한 달여 만에 이·박 회동을 성사시켰고, 여권은 2012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정 실장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정 갈등이 생기면 대통령실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한 뒤 'wait and see(기다리고 지켜본다)' 기조를 고수했다. 정 실장의 군기반장 역할 덕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은 용산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정 실장의 정무 역량은 윤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나온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은 수시로 통화할 뿐 아니라 주말에도 관저로 가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다"고 귀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달 17일 밤에도 정 실장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보고를 받으며 기쁨을 나눴다.

허진·박태인 기자

대한노인회, 내달 회장 선거 앞두고 내부 문제 시끌

1000만 노인의 대표 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김호일 현 회장에 비판적인 시도연합회장들이 내부 징계를 받은 뒤 법정 다툼에 들어갔고, 노인회 안팎에선 김 회장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회는 최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경기·경남 등의 시도연합회장 7명에게 최대 6개월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이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경비 사용 집행 절차를 어겼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호일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 시도연합회 감사 결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징계 대상자들은 김 회장 측이 선거 전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한다. 각 시도연합회장이 노인회장 선출 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다 시군구 회장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인 게 고려됐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시도연합회장 A씨는 "김 회장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들만 징계를 받았다"면서 "선거 시점에 맞춰 반대파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시도회장들은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도회장 B씨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나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김호일 회장의 노인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노인회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 회장이 노인회 후원 기업 등에게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다"면서 "사법당국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도 수익사업 집중,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행운영'을 문제 삼으며 김 회장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4년 임기 막바지인 김 회장의 연임 도전이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 회장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노인회 안팎에선 그가 연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회는 7일께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을 이달 말로 앞당기는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노인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출마를 시사했다.

내홍이 커지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자로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공정성, 투명성과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 전반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종훈 기자

의협 취업연수에 몰린 사직 전공의들 수련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취업·개업 지원을 위한 현장을 찾고 있다.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주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 참석한 전공의들이 강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한·일 내년 국교정상화 60년 맞아 두 정상, 무연고 징용자 묘 참배를"

2년 임기 마치는 윤덕민 주일 대사

"한·일 관계가 정상화했지만, 이에 만족해선 안됩니다. 이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윤덕민(64) 주일 한국 대사는 지난달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처럼 조금 더 미래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선언을 도출하면 후퇴하지 않는 한·일 관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달 이임을 앞두고 인터뷰에 응한 그는 "일본 내에 있는 한국인 징용자 등의 무연고 유골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최저점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뒤 여러 갈등 현안을 직접 다루며 최일선에서 대일 외교를 이끌었다. 그 사이 양국 간 정상외교가 본궤도에 오르는 등 한·일 관계는 확연한 개선의 흐름을 타게 됐다. 그는 셔틀 외교 재개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 내 분위기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임 소감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혐한 분위기일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2년이란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회 만났다. 각료 회담도 부활했다. 셔틀외교 재개, 민간 교류 회복을 통한 1000만 교류 시대 재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한·일간 다양한 네트워크 재건, 한·일 통화 스와프 복원 등이 임기중에 이뤄졌다. 운이 좋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산이라고 해야 할까.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미래 세대는 더는 사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레거시(legacy)가 일본 사회에 상당히 남아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죄와 반성이라는 역사 인식이 있었다. 기시다 정부도 역대 정부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인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 아쉽다."

-라인야후 문제로 우려가 컸는데.

"뼈아픈 지점이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자본 관계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해외 기업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자본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도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 환경을 알리는 전시실을 마련했지만, 강제노동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등재 결정 후 국제 사회 앞에서 일본 대표가 발언한 내용과 일본이 사도광산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새로 전시한 내용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한·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60주년은 동력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미래의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선언을 만들면 후퇴하지 않는 한·일 관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임을 앞두고 바라는 게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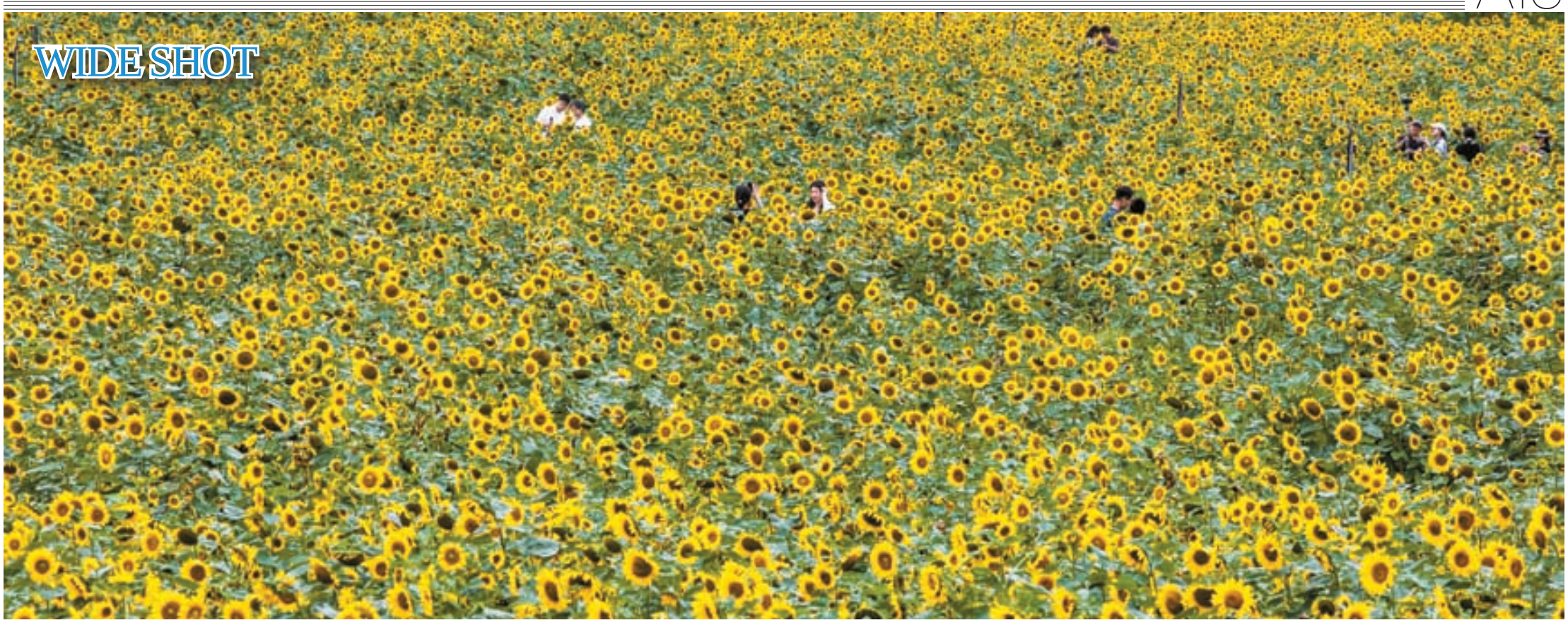
"일본 내에 6000구 정도의 한국인 징용자 등 무연고 유골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같이 참배하면서 무연고 유골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한다."

도쿄=김현예·정원석 특파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WIDE SHOT



100만 송이 해바라기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이 물결처럼 바람을 타고 일렁인다. 자그마치 100만 송이에 이르는 꽃이 축구장 9개보다 넓은 6만6000㎡를 가득 메웠다. 올해 20회째를 맞은 '2024 태백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마을 풍경이다. 한낮에는 폭염이, 밤중에도 열대야가 극성인 도심과 달리 해발 850m 높이에 위치한 구와우마을은 초가을 날씨처럼 선선해 피서를 겸한 꽃구경 인파가 이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차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박춘곤(62)씨는 "얼굴만 한 접시 모양의 꽃들이 일제히 동쪽을 향한 모습도 장관이지만,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노란 물결이 마치 거대한 군무를 보는 것 같다"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사진·글=김상선 기자**

먼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 〈39〉 오스트리아 황실과 죽음

글·그림 이원복

*마네가 그린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

*왼쪽부터 차례로 엘리자베트, 프란츠 요제프, 루돌프의 관

*Maria Mizzi Kaspar(1864~1907)

*Mary Vetsera(1871~1889)

*어머니가 파기했다고 전해짐

GTAX Consulting Group

G·TAX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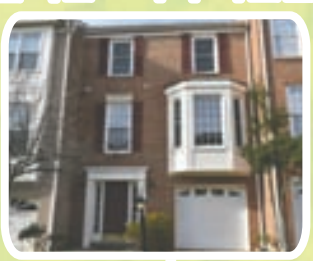
김영선 연방세무사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셔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젼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 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 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 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 경 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우리말 바루기

아내분 / 부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보다 보면 진행자가 남성 출연자를 보고 "그러면 아내분께서 화를 내시지 않던가요?"처럼 말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아내'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를 이르는 단어다. 한자어 '처(妻)'와 의미가 같다. '-분'은 앞에 나오는 말에 '높임'의 뜻을 더해주는 접미사다. 그래서 남의 배우자를 높여 일컫는 말로 '아내분'이란 표현도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도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수 있다. '부인'을 쓰면 된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단어인 만큼 "나는 부인이 친정에 가서 당분간 혼자 지내야 합니다"와 같이 남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일컬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처가/ 집사람이/ 안사람이 친정에 가서"라고 하면 된다. '영부인'이란 표현도 있다.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많은 이가 '퍼스트레이디'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으나 남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일반적 표현이므로 대통령만이 아니라 '김 과장님 영부인'처럼 써도 된다.

'영애(令愛)' '영식(令息)' 등도 대통령의 딸과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딸과 아들을 이를 때 두루 쓸 수 있다. 물론 따님·아드님처럼 쉬운 말로 쓰면 더 좋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 칼럼

실력 담력 매력 3력을 갖춘 대통령 후보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한장의 사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세 연설 중 암살범이 쏜 총을 귀에 맞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나가던 트럼프 후보가 청중을 돌아보며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이다. 지 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선거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담력과 내공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명 장면이다.

총성이 여덟 번 울렸고 총알이 귀를 관통하여 피투성이가 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 다. 저격 순간 고개를 돌린 덕분에 0.5초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귀를 움켜쥐고 얼굴을 숙인 채 바닥을 설설 기어나가는 모습을 보였 더라면 민심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트럼 프는 하늘이 내린 담력테스트를 만점으로 통과했다.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는 3력을 갖춰야 한다. 실력, 담력, 매력이다. 실력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지적능력이다. 이게 부족하면 사 람들이 따르질 않는다. 담력은 위기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 지만 내공과 담력을 갖춘 사람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킨다. 담력이 없으면 위기대응은 고사하고 갑자기 찾아온 기회마저 놓치고 만다.

매력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힘이다. 용모 언행 패션 미소 유머 등 여러 가지 매력요소가 있다. 이성적 요인도 있고 감성적 요인도 있다. 물론 강렬 지지층에게는 매력요인이 상대방 지지층에게는 반 매력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담력과 매력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정보, 지식, 기술이 넘치는 세상이다.

실력만 있는 사람은 도처에 차고 넘친다. 실력 담력 매력 3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트럼프는 하늘이 낸 담력테스트를 만점으로 통과했다.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든 것 이다. 이 정도의 담력이 있어야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끌 수 있다. 그의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딱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총격 사건 이후 언론도 트럼프에 끌려 들어갔 고 주식시장도 트럼프 연관주가 뛰는 등 대세론이 확산되었다. 이런 여세를 몰아 공화당 대선후보 로 확정되었다.

트럼프는 러닝 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로 아이오와주 초선 상원의원인 J. D. 밴스(39)를 지명했다. 이 또한 '신의 한 수' 다. '젊은', '흙수저' 이게 핵폭탄급 무기다. 경쟁자인 82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과 건강문제로 연일 구설에 올라 있는데 젊은 부통령 후보를 끌어들여 압도적 차별화를 실현하였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보다 무려 스무살이 젊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든 대통령 부통령 평균나이는 공화당보다 낮아지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한가지 카드는 '흙수저' 발탁이다. 트럼프는 잘 알려진 거부다. 돈이 넘치고 귀족 처럼 살아온 금수 저 출신이다. 아무리 미국 백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정책을 발표해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금수저 출신이 우리 입장이나 심정을 알겠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번 부통령 후보를 러스트벨트 출신 '완전 흙수저'를 끌어들이면서 지지층의 우려를 털어내고 오 히려 확장시 켰다. 총기 피격사건 와중에서 벌어진 전광석화 같은 일들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 현이 있듯이 미국 대선일까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현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바이든이 후 보직을 전격 사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 성이 매우 높 아졌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영향 을 미친다. 당장 EU도 우크라이나도 긴장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 을 것이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져올 새로운 국면을 치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제 실력 담력 매 력 3력을 모두 갖춘 역대급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도 3력을 모두 갖춘 글로벌 리더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서 유리 하게 대우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한국 기업 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한미 경제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관세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서 유 리하게 대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독자 마당

효도의 의미

효도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마음가짐이고 행위이다. 동양 윤리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윤리, 도덕도 효가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온전하다 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불가사의한 우주 만물의 생성, 운행과 그 안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멀리는 조상으로부터, 현실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연유되었음을 알고 이에 감사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효의 동기는 감사라 할 수 있다. 감사는 필요한 것을 내, 외로부터 받아 채워졌을 때의 순 반응이다. 만물의 운행법칙인 작용에 대한 같은 양의 반작용,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함은 같은 원리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분별하는 지각 능력이 있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찾는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칫 감사에 대한 정도를 벗어나 부모에 대한 통상적 효의 도리를 저버리게 된다면 이는 불효로 여긴다. 불효는 감사에 이어지지 않는 천지 만물 운행질서의 천리를 거스르는 일이기에, 그에 따른 어떤 언행심사도 바르고 온전할 수 없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르게 연결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효는 단순히 예로부터 내려온 윤리, 도덕의 한 축이기 이전에 불변하는 만물 운행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인적,물적 환경이 달라지고 심한 생존경쟁에 내 몰리면서 기존의 도덕률이나 가치관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지식이나 기능만으로 저마다의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 여건이 아무리 변해도 이 모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서로가 정직,존중,신뢰의 고리로 엮어질 때 관계는 완성되며, 이를 통해 효도의 범주에도 들어서게 된다.

윤천모·풀러턴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데이케어 드라이버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챈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폿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이우리
유산 상속법 변호사

Q 오랜 시간 연락 끊긴 가족이 있어 상속재산을 못 나누고 있다면

▶문= 미국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언니였다. 상속 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니랑은 연락 끊긴 지 벌써 십수 년이다. 어떻게 해야 언니와 연락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나?

▶답=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땐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망인이 유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끼리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불가하다.

질문자의 언니는 십여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언니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어 언니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함을 알릴 수 있다.

만약 언니가 소장을 받았음에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 간의 협의가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언니의 주소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사는 곳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언니는 대한민국 민법상 '부재자'에 해당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관리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질문자는 언니와의 연락 두절 상태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Q 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블 타임으로 만약 직원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그 7일째 날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여 미지급 및 오버타임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기 전에 스토어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타임카드를 찍은 후 컴퓨터를 끄고 스토어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 시간이 타임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 시간은 급여가 미지급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된다면 오버타임 위반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해줬는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이 되었으나, 그 30분을 오버타임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오버타임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그저 몇십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누적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누락 벌과금이나, 급여 지급 지연 벌과금 등 급여 지급 위반으로 인해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벌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와 함께 직원 측의 변호사비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청구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

Q 5년 안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문= 저는 5년 안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60대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은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401(k), 403(b), 457(b), 그리고 TSP와 같은 은퇴 계좌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매년 고정된 이자를 약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은퇴 자산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산이 하락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모든 은퇴 계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세금 혜택, 추가 납입,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은퇴자라면 디큐뮬레이션(Decumulation)을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디큐뮬레이션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부를 저축, 증식하는 어큐뮬레이션(Accumulation)의 반대 개념입니다. 최근 경제의 변동성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예비 은퇴자들의 은퇴 후 재정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디큐뮬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5년 정도 남았다면 디큐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미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은퇴 전 5년은 매우 민감한 시기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은퇴 자산이 하락하면 기대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은퇴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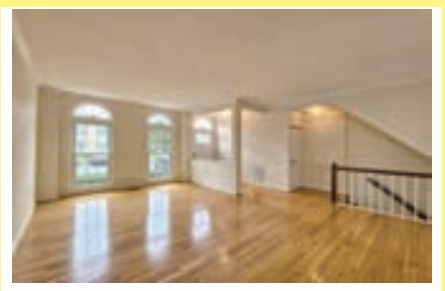
둘째,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는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은 늘고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셜 시큐리티 인컴과 은퇴 계좌의 자금에만 의존하며 오랫동안 살아가야 하는데, 명확한 준비 없이 은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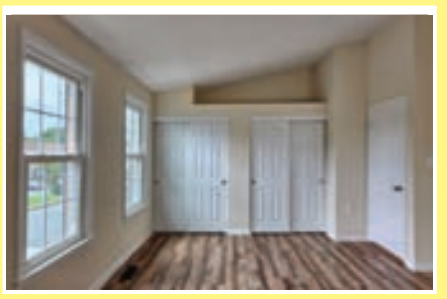
세 번째 이유는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 세금 부담을 가지며 저축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하는 것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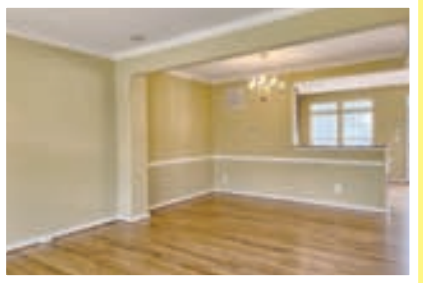
독점 FAIRFAX VA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웍아웃베이스먼트

$6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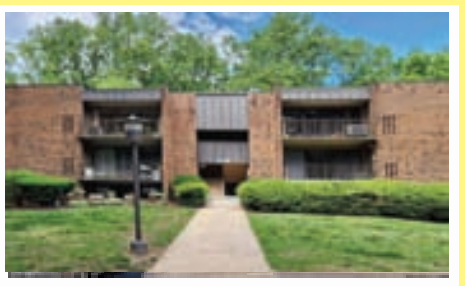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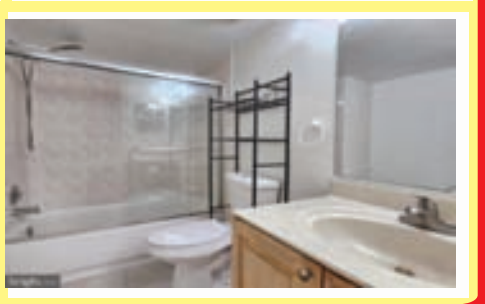


독점 ANNANDALE VA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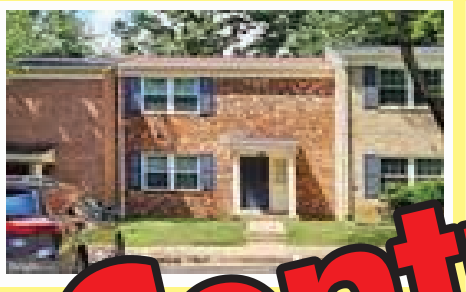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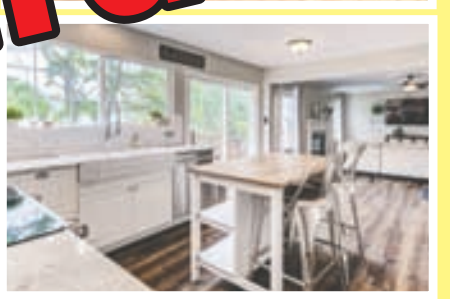


독점 RESTON VA 타운홈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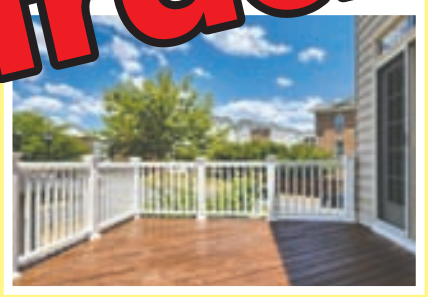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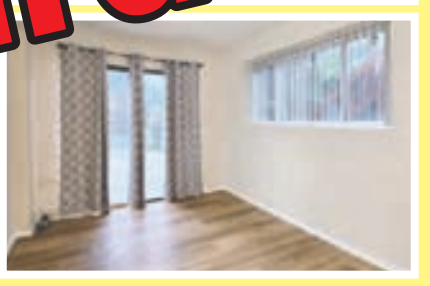


Contract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7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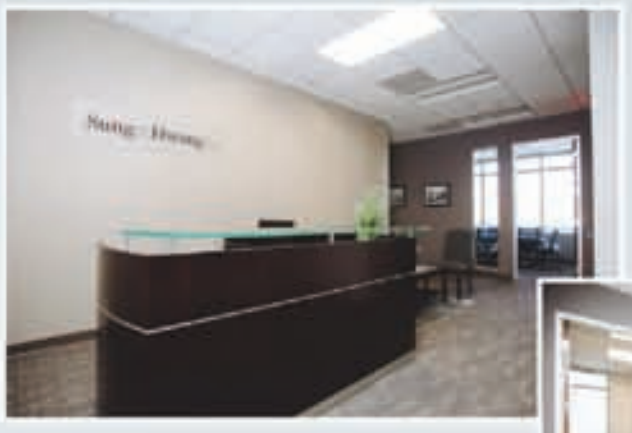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킴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Kim LLP
www.shkfirm.com

RISING STARS Peter K. Hwang SuperLawyers.com
Super Lawyers Peter K. Hwang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 … 코스피 2700선 붕괴

한국 증시가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12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금융시장을 휩쓸면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률은 2020년 8월 20일(3.66%) 이후 4년 만에, 하락 폭은 2020년 3월 19일(133.56포인트) 이후 4년 5개월여 만에 가장 컸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다.

증시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 투자자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8461억원 어치를,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2조1405억 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국내 대표 수혜주였던 SK하이닉스가 17만32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일 대비 10.4% 급락했다. 2011년 8월 18일(12.24%)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삼성전자(-4.21%)·현대차(-3.75%)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이날 주가 하락은 미국의 제조업·고용 지표의 동반 부진이 도화선이 됐다. 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7월 21~2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9000건으로 지난해 8월 첫째 주(25만8000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미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7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46.8로 시장 예상치(48.8)를 밑돌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한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50.3) 깜짝 50 이상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22년 11월 이후 줄곧 50 이하를 밑돌았다. 하지만 지난달 제조업 PMI 예상보다 더 떨어져 지난해 11월(46.7) 이후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통상 제조업 PMI가 42.5 밑까지 떨어지면 제조업은 물론 전체 경제까지 수축하는 것으로 본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1.49포인트 하락한 2676.1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현물시장서 8461억 순매도
미 제조업·고용지표 동반 부진 영향
파월 연준 의장 피벗 실기론도 나와

이날 발표한 미국 제조업 PMI는 내용도 좋지 않았다. 제조업 PMI를 이루는 5개 하위 PMI(신규주문·생산·고용·공급배송·재고) 중에 전월과 비교해 수치가 올라간 것은 공급 배송(52.6)뿐이었다. 실제 ISM에 따르면 지난달 PMI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예상보다 경기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음료 및 담배 업종의 한 응답자는 "예상보다 더 매출이 줄었는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제조업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 침체하면 고용 감소→소비 여력 하락→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발표한 제조업 PMI 중 하위 항목인 고용 PMI는 지난달 43.4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했던 2020년 6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ISM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에서 직원 감축을 하겠다고 응답한 의견은 채용하겠다는 의견에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예상보다 크게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면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놓쳤다는 '피벗 실기론'도 나온다. 미국 금융 정보업체 바이털놀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 전략가는 "제조업 PMI가 예상치보다 떨어진 것은 경제 성장 여건이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며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인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에 글로벌 주요 지수도 이날 큰 폭으로 내렸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5.81%, 대만 자취안 지수는 4.43% 급락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존스지수가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1.37%, 나스닥 종합지수가 2.30%씩 하락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제조업지수와 신규 실업수당청구 부진의 여파가 경기 둔화 우려로 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또는 침체'라는 공식이 이런 우려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공포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은 상승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99%까지 하락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수익률)는 떨어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2일 고용보고서를 통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전망치 17만5000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12개월 동안의 평균 증가 폭(21만5000명)에 비하면 상당히 둔화한 수치다. 7월 실업률은 4.3%로 6월(4.1%)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4.1%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 역시 웃돌았다. 노동 시장이 악화하면서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는 9월 빅스텝 확률이 하루 새 22%포인트 상승해 61.5%로 높아졌다.

안효성·김남준 기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읍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교통사고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 나셨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병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백우진의 **돈의 세계**

통계와 돈, 양자역학

워싱턴DC 매사추세츠 애비뉴에 자리 잡은 노동통계국(BLS). 매달 실업률 발표일에 BLS를 방문한 기자들은 락업 룸(lock-up room)에 갇힌다. 그에 앞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개인 소지품을 전부 개별 사물함에 넣어 둬야 한다. 기사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데에는 공용 컴퓨터를 활용한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의 '미국 경제 최대 비밀 지키기' 기사에 따르면 기자들이 감금되는 시각은 8시. 실업률 보도자료가 뿌려진다. 8시 30분까지 엠바고(보도 금지)가 걸려 있다. 기자들은 엠바고 준수 각서에 서명한 상태다.

BLS가 이처럼 엠바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통계에 따라 돈이 움직이고, 특히 남보다 먼저 입수한 통계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 기자를 통해 실업률 수치를 일찍 알게 될 경우 뉴욕시장 개장 전이라도 국채선물 투자와 차

익 실현이 가능하다.

전보다 이른 시기에 통계가 발표된다면, 경제주체 전반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줄 모르고 적극 투자하는 실책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통계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속보지표는 의미가 있다. 매월 속보지표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수 있게 집계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활동동향은 매월 통계가 다음 달 말에 공개된다.

속보지표와 관련해 유념할 점이 있다. 속보성과 정확성의 상쇄관계다. 통계가 현상을 더 이른 시일 안에 파악하면 속보성이 강해지지만, 그럴수록 정확성은 낮아진다. 반대로 정확성을 높이려면 속보성을 희생해야 한다. 이를테면 통계의 '불확정성 원리'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은 입자의 위치 측정과 운동량 측정의 상쇄관계를 가리킨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일 발표됐다. 통계청 속보지표는 내년부터 공표된다. 이 지표가 얼마나 이목을 끌지 궁금하다.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

금리 올렸다, 수퍼엔저에 손든 일본

BOJ, 3월 이어 0.25%로 또 인상
엔저 부작용에 정치권도 압박
금리 15년반 새 가장 높은 수준
4조달러 '엔캐리' 일본 유턴 주목

지난달 31일 일본 중앙은행(BOJ)이 정책금리를 0.25%로 '깜짝 인상'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0.3% 전후) 이후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빠른 7월 인상을 택한 것은 38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엔화'의 위상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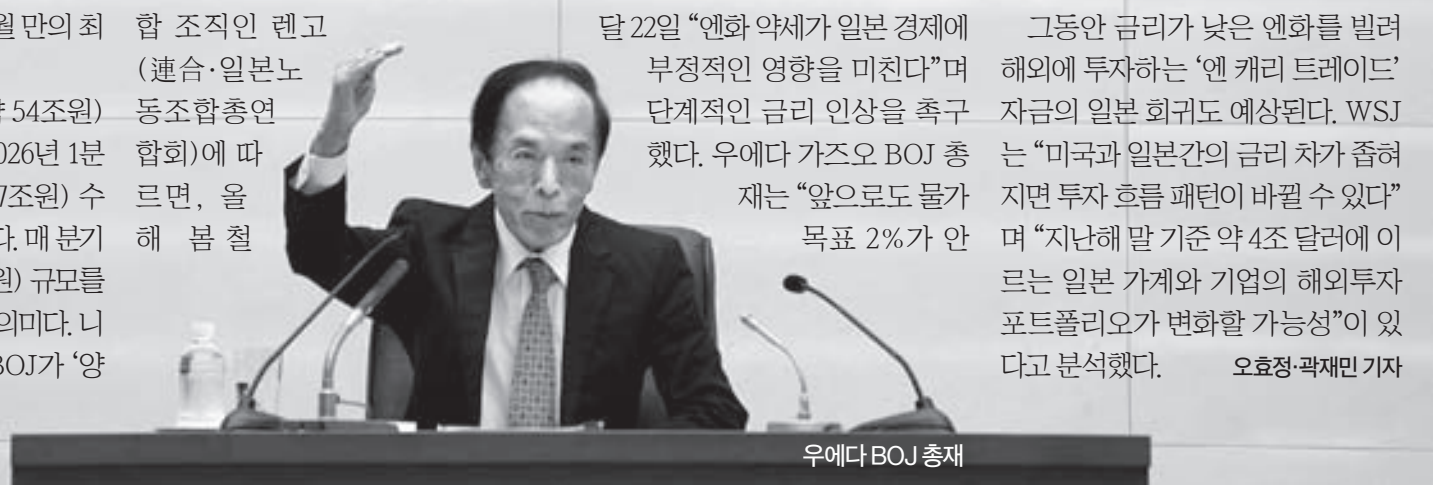
BOJ는 7월 30~31일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 잔고 금리)를 기존 0~0.1%에서 0.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지 네 달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이다. 특히 2008년 12월(0.3% 전후) 이후 15년 7개월 만의 최고 금리다.

이날 BOJ는 월 6조엔(약 54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규모를 2026년 1분기(1~3월)에는 3조엔(약 27조원)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매 분기 약 4000억엔(약 3조6000억원) 규모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제 BOJ가 '양적 긴축'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BOJ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하면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7개월 연속 목표치(2%)를 웃돌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면서 4월(2.2%)과 5월(2.5%)보다 상승 폭을 더 키웠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봄 철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0%로 지난해(3.58%)보다 1.52%포인트 올라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BOJ의 '깜짝 인상'엔 역사적인 엔저(低) 현상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엔저 현상은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긴 했지만, 에너지 가격 등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가계 부담을 키웠다.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신임 재무관은 지난달 30일 "최근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의 '인상' 압박도 적지 않았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달 22일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촉구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앞으로도 물가 목표 2%가 안정·지속적으로 실현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금융 완화의 강도 조절도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0% 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급격한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에다 BOJ 총재

BOJ 결정 이후 엔화가치는 뛰었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BOJ 금리인상 발표 직후 엔화값은 1달러당 151.68엔까지 뛰었다. 엔화값에 동조화 경향이 있는 원화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달러 대비 8.8원 오른(환율 하락) 1376.5원을 기록했다.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다.

그동안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일본 회귀도 예상된다. WSJ는 "미국과 일본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투자 흐름 패턴이 바뀔 수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일본 가계와 기업의 해외투자 포트폴리오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효정·곽재민 기자

석유 메이저 아람코·에니 '대왕고래' 투자 검토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사우디·이탈리아 대형 국영기업
석유공사 진행 투자설명회 참석
개발비용 절감·기술력 보강 기회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ARAMCO)와 에니(ENI)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아람코와 에니를 상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조만간 두 기업 본사를 각각 방문해 심층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로드쇼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사안이라 밝힐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람코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국영 기업이다. 2019년 12월 전체 지분의 1.5%를 사우디 증시에 상장하고 약 294억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하면서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 자리에 오른 적 있다. 한국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국내 주요 정유 기업인 에쓰오일의 최대주주가 아람코다. 아람코와 더불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하는 에니는 이탈리아 국영 기업이다.

두 기업에 앞서 서구권 최대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미국 엑슨모빌(ExxonMobil)도 석유공사 로드쇼의 문을 두드렸다. 엑슨모빌은 투자 여부와 별도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결과(추정 매장량 최대 140억 배럴, 2000조원 안팎 가치)를 검증하는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들 기업 외에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나스(Petronas) 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 비용을 아끼고 국내 기업만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프로젝트 신뢰성 논란도 진정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는 해외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조광료(租鑛料) 제도를 손보고 있다.

현행 해저자원광물법 18조 등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데, 생산한 석유·가스 판매가액(가공·저장·수송 비용 등을 공제)의 최대 12%에 그치게 돼 있다.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진행하게 될 탐사시추(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보는 일)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7개로 구성된 유망 구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왕고래'부터 파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 달까지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시추 지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엔 프로젝트의 전진기지로 부산이 경북 포항을 누르고 선정됐다. '항만시설 및 하역' 용역 입찰에서 부산신항만다목적터미널㈜이 낙찰된 것이다. 포항영일신항만㈜은 경북도·포항시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나타냈지만, 기상(氣象) 등 조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탓에 실패했다.

석유공사는 부두 접근성과 항만 하역 경험 등을 기준으로 부산신항을 낙점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뤄지는 탐사시추 작업을 진행하려면 인력과 물자를 나를 보급선을 운영할 배후 항만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보안상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대왕고래 유망 구조(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질 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민중 기자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NEW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창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든, 버지니아

NEW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단독 건물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

NEW 디씨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사무실
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사무실
워싱턴 디씨,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

Beer & Wine Shop
주2만불수입
랜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eer & Wine Shop
주1만8천불수입, 랜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상가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상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상가
발티모아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주 택 | 투자 컨설팅 | 주재원 랜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 사 업 체 |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효과적으로 세금 관리하려면 연금 활용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남겨줄 투자 자산이 있다면 세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향후 30~40년 30조 달러 부모에서 자녀로 상속 예상
연금 '페이아웃' 방식 일시불, 5년 분할, 연금화 등 다양
'스트레치 방식' 연금 인출 투자수익 세금유예 혜택 연장
순수 투자용 연금 관련 비용 월 20달러로 비교적 낮아

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세금이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가진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 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속계획

세금 문제는 자금을 불릴 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상속 계획 차원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특히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녀 세대에게 세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후 30~40여년에 걸쳐 무려 30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세금으로 줄어들 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요지는 세금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페이 아웃' 방식

IRA 계좌가 아니면서 연금을 활용한 경우를 보통 'Non-qualified' 연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적립하는 돈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가 없는데도 연금을 은퇴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세무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보자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예된다는 점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수익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식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누리는 복리 혜택이 훨씬 큰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난 자금은 본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사용하거나 사망 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수 있을 것이다. 원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잔액의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배우자 본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삼자가 수령하게 될 경우 잔액의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목돈으로 받는 것이다.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물려받은 연금의 잔액이 60만 달러이고, 그 중 50만 달러가 수익이라면 이 50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령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이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화해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령자의 예상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원하는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잔액은 계속 투자되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투자관리 권한이 없어지고 한번 결정된 수령방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stretch)' 방식이다. 약간의 세부사항만 다르다. 스트레치는 연금화하지 않으면서 잔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인출, 수령하면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다. 늘린다는 의미의 '스트레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치 방식은 잔액 수령자의 예상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한의 강제인출금(RMD)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의 잔액을 상속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더 인출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금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의 세금유예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RMD 혹은 추가 인출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잔액 수령자가 연금의 자금을 굳이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경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증식을 원소유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스트레치라 해도 인출 가능한 금액을 RMD로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원소유주가 정하는 것이다. 이를 보통 'Restricted'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부른다. 원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혜택만 지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나 환경에 따라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스트레치 활용 장점

스트레치 방식으로 연금을 인출, 수령하면 그만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게 하고,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부대비용이 없는 순수 투자용 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관련 비용이 연 2~3%에 달한다.

하지만 순수 투자용 연금은 월 20달러 고정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0.24%에 불과하다. 투자금액이 많으면 클수록 이 비용은 사실상 없으나 마찬가지다. 투자금이 50만 달러면 0.04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만큼 수익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치 인출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금을 순수 투자용 연금을 통해 투자, 관리할 경우 IRA 등처럼 상속받은 후 10년 내 인출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만 할 경우 규모가 큰 금액이라면 자녀는 물론, 그 이후 세대들에게까지도 자산이 계속 상속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IRA나 401(k)등의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과세대상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원소유주를 위한 자금증식뿐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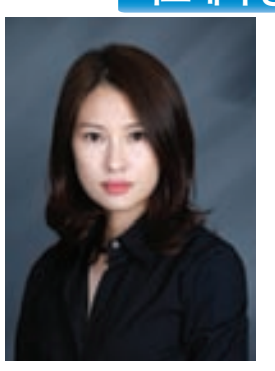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Safe Harbor 401(k)플랜

비차별테스트 면제와 세금 혜택 극대화
직원 복지도 제공해 모두에게 윈윈 전략

401(k)를 운영하면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매년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사항을 면제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Safe Harbor 401(k)플랜을 활용하는 것이다.

1. Safe Harbor 401(k)플랜

Safe Harbor 401(k)플랜은 대부분의 비차별 테스트를 자동으로 충족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유형이다.

이 플랜을 도입하면, 기업주는 비차별 테스트를 면제받아 행정적, 금전적, 법적 의무사항을 덜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플랜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일정 부분 직원들에게 기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귀속 기간(Vesting Period)을 둘 수 없어,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고용주는 이미 지급한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2. 기여 방법

기업주는 직원들의 Safe Harbor 401(k) 플랜에 기여금을 넣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기본 매칭(Basic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다. 직원의 급여의 최대 3%까지 100% 매칭하고, 그다음 2% 대해 50% 매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3%인 1800달러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이 금액의 100%를 매칭하고, 추가로 2%인 1200달러에 기여한다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50%인 600달러를 매칭해야 한다.

두 번째, 비례 기여 플랜(Non-Elective Contribution Plan)이다. 이 경우, 직원이 기여하지 않더라도 기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연봉의 최소 3%에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연봉이 6만 달러라면, 기업주는 매년 1800달러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화 매칭 기여플랜(Enhanced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 있다. 이 방법은 첫 4%의 기여에 대해 100%를 매칭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만 달러를 받는 직원이 급여의 4%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100%를 매칭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여해야 한다.

3. 셋업 기한과 마감일

Safe Harbor 401(k) 플랜을 도입할 경우, 일반 401(k)와 달리, 플랜 셋업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것과 기존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마감일이 다르다. 새로운 Safe Harbor 401(k) 플랜을 시작하려면 10월 1일이 최종 마감일이다. 매칭 기여를 하는 경우, 플랜 시작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9월 1일 이전에는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401(k)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사는 Safe Harbor 401(k)플랜을 설치하려는 기업들에 8월 말까지는 플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존 401(k)플랜에 Safe Harbor 매칭 조항을 추가하려면,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11월 20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30일 전 통지해야 하므로, 12월 1일까지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또한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401(k) 투자회사의 구체적인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Safe Harbor 401(k)플랜을 도입해 고용주는 비차별테스트를 면제받아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할 수 있고, 세금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401(k)플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Safe Harbor플랜 도입 여부에 대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경제 상식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ETF

장중 거래와 분산 투자 가능이 장점
하루 주식 거래량 중 26~30% 차지

ETF(Exchange Traded Fund)는 증권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다.

1993년에 처음 거래가 시작된 ETF는 2000년대까지 증권가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투자 상품이었다. 당시 개별 주식 투자는 대부분 증권 회사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고 뮤추얼 펀드도 증권 회사를 통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래가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수수료가 없는 'No Load' 펀드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한 피델리티와 찰스슈왑 같은 디스카운트 증권사들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며 2000년대 들어 ETF의 인기도 동반 상승했다.

뮤추얼 펀드와 ETF는 크게 펀드매니저가 증시와 주식을 분석하며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액티브(Active)투자와 S&P500 지수 같이 지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지수펀드(Index Fund)같은 패시브(Passive)투자가 있다.

ETF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뮤추얼 펀드의 하락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ETF는 뮤추얼 펀드와 달리 장중 거래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종가 기준으로 거래되는 뮤추얼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현실감도 떨어지고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일반 주식과 같이 장중 거래가 가능하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ETF는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 중 26~30%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각종 인덱스 뿐만이 아니라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원자력, 광산 등도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ETF는 가상화폐 ETF의 상장이 승인되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져가고 있다.

관리자산 규모로 가장 큰 ETF는 SPDR S&P500(SPY)으로 규모가 5400억 달러에 이른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iShares Core S&P500(IVV)의 4890억 달러와 합치면 둘의 관리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가게 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증시 고평가의 우려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짐작되는 부분이다.

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ETF는 좋은 투자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종류의 ETF도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관리 비용이나 ETF가 보유한 주식들이 공개돼 있어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수익성 보다 안전도가 우선인 점을 늘 명심하고 ETF를 포트폴리오에 잘 활용 하는 것을 추천한다.

광고 및 구독 문의 703-281-9660

‘악마 모드’와 ‘어른아이’ 오가는 혁신가

일론 머스크
월터 아이작슨 지음
안진환 옮김
21세기북스

1 2000년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함께한 머스크. 2 13일 인공지능 논의를 위해 미 의회로 향하는 머스크. 3 올 초 중국 베이징에서 테슬라 차량에 탑승한 머스크. 4 자동차 모형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머스크.
[사진 21세기북스], [EPA·로이터=연합뉴스]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책의 첫머리에 인용된 일론 머스크의 말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번주 동시 출간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이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시로 논란을 자초해온 그의 전기. 『스티브 잡스』 등 전기 작가로 이름난 언론인 월터 아이작슨이 그를 2년간 밀착 취재하고 가족·동료·경쟁자 등 130여명을 인터뷰해 썼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손에 잡힐 듯 생생히 그려내는 덕에 700쪽 넘는 분량이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호사가의 관심을 자극하는 내용도 많다. 유아 돌연사증후군으로 생후 10주 만에 숨진 첫 아이를 제외하고 그가 세 여성과 모두 10명의 자녀를 뒀고, 세 여성 중 뉴럴링크 임원 시본 질리스는 그의 정자 기증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렇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대리모를 통해 그의 다른 자녀를 낳은 팝가수 그라임스는 이를 미처 몰랐고, 이 대리모와 질리스는 같은 병원에 나란히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10명의 자녀 중 성전환을 한 맏이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를 마르크시즘의 영향으로 여겨서 저택을 모두 팔기도 했다.

과연 이렇게 시시콜콜 알아야 할 만큼 그는 중요한 인물일까.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이 다를 테지만, 그는 테슬라의 전기차와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현재 6개인 그의 회사로는 트위터를 인수해 이름을 바꾼 X와 스타링크도 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의 무선통신 설비를 제공해 칭송을 받은 그는, 이 전기에 따르면 크림반도에 수중 드론 공격을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돕지 않았다. X에서는 기존 직원의 75%를 해고했을 뿐 아니라 문제적 인물들의 계정을 복원시켰다. 정치적 올바름과 규제에 대한 그의 반감, 정치 성향과 그 변화에 대한 이 전기의 내용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책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팬은 아니지만, 오바마와 달리 바이든에게는 호감이 없다.

우주를 두고 경쟁하는 제프 베조스를 포함해 거물들과의 일화도 다채롭게 언급된다. 그가 첫 부인 저스틴 윌슨이 쓴 소설에 아마존 직원들을 시켜 서평을 써달라고 베조스에게 부탁하자, 베조스는 그러는 대신 직접 고객 리뷰 하나를 써서 달았다. 자선활동과 기후변화를 논하려 머스크를 만난 빌 게이츠는 화성에 대한 그의 열정과 구상은 좀 기괴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여겼다. 반면 그는 자선활동의 대부분이 “허튼 수작”이라 여겼고 게이츠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한 사실에 분노했다. 정작 게이츠는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의아해했고, 그는 게이츠가 의아해하는 것을 의아해했다는 저자의 관찰이 흥미롭다.

구글의 래리 페이지와 자신의 생일날 벌인 격한 토론은 인공지능(AI)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드러낸다. AI시스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그의 견해를 페이지는 인간을 우월시하는 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후 구글의 딥마인드 인수를 막으려다 실패하자 오픈AI를 만들었지만 이 연구소와도 멀어졌다. 올해초에는 샘 올트먼을 불러 영리성 등을 질타했고, 이후 엑스닷에이아이(X.AI)를 만들었다. 책에 따르면 그가 앞서 뉴럴링크를 만들어 컴퓨터와 인간 뇌를 연결하는 칩 개발에 나선 것도 AI시스템이 인간의 가치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과 관련된다.

그의 삶 전반을 담은 전기답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2008년 파산 위기를 넘어선 과정을 비롯해 혁신적 기업가로서의 여정 역시 상세하게 담겼다.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 저자는 남아공에서 나고 자란 그의 어린 시절을 주목한다. 책에 따르면 그는 심한 구타를 포함해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이,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 “지킬과 하이드”를 오가며 폭언을 쏟아내던 아버지를 멀리 하려 하면서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다. 그는 주변에서 ‘악마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오간다. 싫어하면서도 닮는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공감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고,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 자초하는 인물로도 묘사된다. 남들 같으면 만족할 때 일을 친다. 트위터라는, 저자의 비유에 따르면 흥미진진한 “놀이터”를 인수한 것도 이런 시기였다. 문제는 “공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감각”을 가진 그가 “인간의 감정을 다룰 때는 신경망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 저자는 그가 “기술 회사”라고 생각한 트위터는 “인간의 감정 및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매체였다고 지적한다. 이후남 기자

책꽂이

우리말 맞춤법 수업(배상복 지음, 사람in)=저자는 언론사 어문연구소 기자로 수십 년 우리말을 다뤄온 전문가. 대학생과 직장인 눈높이에서 자주 헷갈리지만 꼭 알아야 할 맞춤법·띄어쓰기를 골라 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같아요’를 비롯해 가급적 쓰지 말아야 할 표현, 총 100문항의 사지선다형 복습 문제와 정답도 실었다.

향수 수집가의 향조 노트(ISP지음, 파이퍼프레스)=꽃과 식물을 키우며 향을 탐구하고 수많은 향수를 수집·리뷰해온 저자가 베르가못·패츌리·로즈우드 등 100여개 향조를 계열별로 소개한다. 직접 경험해본 저자의 관점을 담아 실용지식을 전하는 ‘경험들’ 시리즈 첫 책. 『이번 주말의 도쿄』 『마법 같은 뮤지컬 생활 안내서』도 함께 나왔다.

황혼에 이룬 꿈(신준호 지음, 지식과감성)=환갑 이후 두 번이나 쓰러지며 병마에 시달리다 회복한 저자는 다시 등산을 시작하고, 20㎏ 넘는 배낭을 지고 길을 떠났다. 약 4900㎞의 해안선 도보일주, 424㎞의 휴전선 도보횡단, 300대 명산 완등, 5대강 도보일주, 340개 섬 여행 등 10년에 걸친 국토 대장정의 기록을 담았다.

아주 짧은 소련사(실라 피츠패트릭 지음, 안종희 옮김, 롤러코스터)=“소련이 그렇게 간단히 붕괴할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2000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초강대국으로 미국과 나란히 세계를 양분하다 갑자기 몰락한 소련의 75년 역사를 러시아혁명부터 압축적이면서도 수준급의 서술로 담아냈다.

작은 부엌에 담은 인류학·과학·문학

역사와 문화로 보는 주방 오디세이
장원철 지음
글항아리

이 책은 우선 역사책이다. 출판사도 이 책을 역사, 그중에서도 테마사로 분류했다. 이 대목을 한번 보자. ‘왕실의 제사는 한 해 평균 170여 차례, 많게는 347건이었다. 이렇게 제사가 많았지만 제사 음식에 여자의 손이 닿는 것은 법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영조42년(1766) 8월 영의정 홍봉한이 아뢴다.’(99쪽) 그런가 하면 인문 책, 특히 인류학 책이다. 이 대목을 보자. ‘지금도 수렵채집생활을 하는 부족민의 평균 출산 간격은 3.6년이다. 반면 현대인의 평균 출산 간격은 2.1년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구석기인의 출산 간격을 4년으로 추정한다.’(125쪽)

이 대목은 어떤가. 영락없는 과학책이다. ‘수소 원자 2개는 각각 하나 값의 양전하를, 산소 원자 하나는 두 개 값의 음전하를 갖는다. 이들은 나침반 바늘이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 늘어서는 것처럼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늘어설 수 있다.’(193쪽)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한번 보자. ‘토막 난/ 죽은 몸들에게 짓눌려 피거품을 물던 너는/ 안 죽을 만큼의 상처가 고통스러웠다.’(72쪽) 신기섭의 시 ‘나무도마’ 중 일부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장르로 읽을 수 있다.

젓가락·칼·도마·냄비·프라이팬·가열도구·냉장고·각종 그릇 등 주방 도구를 소재로, 출판사 소개를 빌자면 ‘부엌의 작은 역사’를 풀어낸 책이다. 역사라고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문, 과학, 심지어 문학까지 녹여 넣었다. 사실 책날개의 저자 소개로는 별 기대할 게 없어 보였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쓰거나 번역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머리말에 들어서자 자기소개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나는 남대문 그릇도매상가에서 업소용 주방기물을 팔았다.’ 책에는 이 경력이 물씬 묻어나는 대목이 많다. ‘(칼)날 각을 말할 때는 보통 한쪽 날, 편도만을 얘기한다. 이 날 각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칼의 종류와 기능이 달라진다.’(63쪽) 저자는 다양한 관련 자료와 연구를 인용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책을 쓰는 데 5년이 걸렸다고 한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는데, 저자는 서 말의 구슬을 정말 잘 꿰었다.

장혜수 기자

3㎝ 화폭에 담은 역사만 350종

"국가대표 마음으로 만들죠"

사진 왼쪽부터 1884년 최초로 발행된 5문, 10문짜리 우표. 2005년 지리산의 여름을 담아 제작한 명산 시리즈 우표. 2019년 박은경 디자이너가 기획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우표. 지난 1일 발행된 한국·그레나다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현지의 유서 깊은 저택을 모델로 삼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우표. 1983년 발행된 5000원짜리 호랑이 민화 우표. [사진 우정사업본부]

"3㎝ 작은 화폭에 우리 시대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최대한 담아내고 싶었어요."

가로 26㎜, 세로 36㎜.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로 조그마한 우표지만 그 안에는 140년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발자취가 곳곳에 담겨 있다. 1884년 우정총국(지금의 우체국)이 설립된 지 올해로 140주년. 그동안 발행된 우표는 총 3773종에 달한다. 마침 지난 1일은 1895년 국내에 빨간 우체통이 처음 세워지면서 근대식 통신 제도인 우편 업무가 본격화된 날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그레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양국이 함께 수교 기념우표를 발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념우표의 디자인은 박은경(54) 우정사업본부 디자인랩실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1996년 입사 후 29년째 우표 디자인이란 한 우물을 파온 그가 지금까지 제작을 도맡은 우표만 350종이 넘는다. 올해 갑진년 연하우표도 그의 디자인을 통해 세상이 나왔다.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작은 화폭에 담아온 '우표 디자인 베테랑'을 세종시 작업실에서 만나봤다.

2017년 제작한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 우표를 소개하고 있는 박은경 우정사업본부 디자이너.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 우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명산 시리즈 땐 등반하느라 무릎 다 나가

-어떻게 우표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뒤 광고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끌리듯' 우정사업본부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원래 중고생 때부터 엽서 마니아였거든요. 멋진 엽서에 어울릴 만한 예쁜 우표를 찾는 게 취미였다 보니 어릴 적부터 우표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렇게 인터넷이 등장한 초창기 시절인 1996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왜 굳이 우표였을까. '세상을 담기엔 너무 작지 않냐'는 질문에 박 디자이너는 "고2 등하교 때 88 서울올림픽 기념우표에 그려진 성화를 본 뒤 마음속 불씨가 활활 타는 걸 느꼈다"고 회고했다. "우표는 평면인데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은 너무나 입체적인 거예요.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표의 흡입력과 전달력은 크기와 반비례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우연의 일치였는지 그는 입사 후 1년 만에 대형 스포츠대회 우표 제작을 맡게 됐다.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기념우표였다. "보통 입사 2~3년은 지나야 디자인 업무가 주어지는데 선배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덜컥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당장 서울올림픽 기념우표가 떠올랐고, 그때 느낌을 되살려 부산 대회 우표에도 성화를 등장시키면서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습니다."

-스포츠 우표가 가장 고난도라면서요.

"3㎝ 안팎의 평면 종이에 선수들의 움직임과 속도감을 담아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의 시그니처 장면을 우표에 담고자 할 때 트리플악셀이든 더블악셀이든 다 똑같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운동선수의 박진감을 단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밤도 숱하게 새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정확성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작아서 안 볼 것 같지만 우표도 민원이 꽤 들어옵니다. 붉은색 부리의 조류를 그린 우표를 보고 원래 노란색인데 잘못 그렸다고 지적할 정도였죠. 확인해 보니 크면서 부리 색깔이 붉게 변하는 새였습니다. 그 후로 랩실 디자이너들이 제작된 우표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몇 번씩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고, 저도 우표에 담기는 건 무조건 두 눈으로 직접 본 뒤 그리자고 결심하게 됐죠."

2004년부터 5년간 발행해 큰 화제를 모은 '한국의 명산 시리즈 우표'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라산을 비롯해 지리산·설악산 등 한국 주요 산의 춘하추동 사계를 우표에 담기 위해 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에 올랐다. "말 그대로 '극한 직업'으로 치면 단연 1등일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네 발로 올라갔다 엉덩이로 내려오길 수없이 반복했죠. 하지만 우표에는 가장 잘 나오는 구도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직접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명산을 제대로 담아낸 우표를 보고 모두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느끼도록 하겠다는 결심에 힘을 냈습니다."

-평소 산을 꽤 타셨나 봐요.

"전혀요. 첫 시리즈인 한라산 백록담이 제 인생의 첫 등반이었죠. 그때부터 산악인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웃음). 장비를 갖추고 산에 올라가면 보통 3박 4일씩 걸리곤 했죠. 백록담에서 작업을 마치고 하산할 때는 멀리서 누가 손을 흔들어서 저도 반갑게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이 낭떠러지라 위험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명산 시리즈를 하면서 무릎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야만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표에 담고 싶었습니다."

기념우표 중 빠질 수 없는 게 신년 연하장에 붙는 연하우표다. 올해 청룡의 해 연하우표도 직접 디자인한 그는 "이미 지난해 3월 디자인 작업을 마쳐 새해를 일찍 맞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며 "연하우표는 '새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우표와 달리 발행연도를 표기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귀띔했다. 물론 긴급하게 제작되는 우표도 꽤 있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대표적이다. 이 우표는 취임식에 맞춰 발행돼야 하는 만큼 두 개 정도의 후보를 미리 제작해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는 건 국가 기념행사 우표였다. "대외적으로 역사에 남는 기록물이잖아요.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동시에 '변화'라는 측면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우표라면 큰 ↗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최대보상
개인상해 보상청구
Chapter 7: 개인 파산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제주도 연습장 없어 나주까지 간 오예진

작년 만삭 몸으로 출전권 딴 금지현

한국 사격이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새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성적도 좋을 뿐더러 개성 있는 선수들이 속속 나타나고, 사격장 인프라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 총성은 개막 첫날인 7월 27일 울렸다.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이 공기소총 10m 혼성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었다. 금지현은 지난해 만삭의 몸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뒤 딸을 출산하고 총을 다시 잡은 뒤 각고의 노력으로 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파리에서 메달을 따면 둘째를 갖기로 했다. 둘째를 낳은 뒤 다음 올림픽에도 나가고 싶다. 후배들에게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여자 공기소총의 반효진(16·대구체고2)은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중2 때 사격을 시작한 반효진은 불과 3년 만에 올림픽 정상에 올랐다. '경험이나 쌓자'는 마음으로 큰 부담감 없이 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한 반효진은 깜짝 1위를 차지하며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당초 이 종목 에이스는 3년 전 도쿄 올림픽 혼성전에서 4위에 오른 권은지(21·울진군청)였다.

반효진

도약의 기회 맞은 한국 사격

반효진, 경험차 간 국대선발전 1위

오예진, 학교선 간이 사격장서 연습

오예진

올림픽 출전권도 따온 권은지는 반효진 돌풍에 밀려 선발전 3위에 그치며 파리행이 좌절됐다. 권은지는 "효진이는 나에게 부족한 담대함이 강점이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반효진의 쾌거에 힘입어 사격장 시설 확충에 나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사격장 시설을 보완해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사격팀 조현진 감독은 "대구사격장은 10m 결선 사격장만 있고, 25m와 50m 결선 사격장이 없다. 시설이 확충되면 각종 국제·국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자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오예진(19·IBK기업은행)은 제주도 출신으로 개인종목 첫 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제주도에는 공식 대회를 할 수 있는 사격장이 없다. 오예진은 제주여상 시절 학교의 간이 사격장에서 10m 공기권총 연습을 했고, 25m 화약총 훈련을 위해서는 전남 나주사격장까지 가야 했다.

김태조 제주사격연맹 전무는 "제주도 전역에 축하 플래카드가 내걸려 축제 분위기다. 이참에 국제 규격의 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한사격연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IT 업체를 운영했던 이은철씨를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모셨다. 이 위원장은 결선에 강한 선수를 뽑는 선발 방식을 도입해 결선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김준혁 SBS 사격 해설위원은 "사격에도 MZ 세대가 등장했음을 이번 올림픽이 보여줬다. 사격 경기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지적에 따라 격발 횟수를 줄이고 결선에서도 최하위 한 명씩 탈락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지구력보다는 순간 집중력이 중요해졌다는 뜻인데 이 틈을 젊은 선수들이 비집고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정영재·고봉준 기자

남성 염색체 여자선수 논란, 상대 선수 46초 만에 기권

성별 논란 속에 치른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XX 염색체' 선수가 'XY 염색체' 선수와 대결해 경기 시작 46초 만에 기권패 했다.

안젤라 카리니(25·이탈리아)는 1일 프랑스 파리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kg급 16강전에서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에게 판정패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복싱 선수 가운데 칼리프와 린위팅(28·대만)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복싱협회(IBA)로부터 실격 처분을 받았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선수의 여자 복싱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경기 시작 직후 칼리프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한 카리니는 30초 만에 이탈리아의 코너로 돌아가 헤드기어를 고쳤다. 그러나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권을 선언하고 링을 떠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리니는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위해 항상 충성을 다했다. 이번에는 더는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다. 코에 강한 통증을 느껴서 더 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가 2019년 디자인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우표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독립기념관을 찾아가 서세옥 화가의 '만세도'를 두 눈으로 본 뒤 그 감동을 우표에 담자고 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기존의 3·1운동 기념우표는 동상 등을 내세우다 보니 정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금방이라도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칠 듯한 생생한 모습을 우표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1884년 최초의 우표인 5문, 10문짜리 우표부터 액면가가 가장 비싼 5000원짜리 호랑이 민화 우표까지 우표엔 140년 근현대 역사의 흐름도 생생히 담겨 있다. 최근엔 사회상을 반영하듯 만화나 영화 등 문화 콘텐트도 우표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만화가들 사이에서 '무서운 여자'로 불렸다면서요.

"1999년 만화 우표 시리즈를 제작할 때 저도 중간에 투입됐어요. 1990년대 국가 중점 육성 문화산업으로 만화가 각광을 받으면서 10년 장기 시리즈로 기획된 프로젝트였죠. 라이파이(김산호)부터 독고탁(이상무), 임꺽정(이두호), 영심이(배금택), 꺼벙이(길창덕), 맹꽁이 서당(윤승운) 등 평소 즐겨봤던 만화책의 작가분을 실제로 뵈어 제게도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표는 만화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표에 맞게 계속 수정을 거듭해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무서운 여자'라는 말도 듣곤 했죠(웃음). 그래도 나랏일이라며 흔쾌히 도움을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셨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땐 함성 표현하려 노력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 채팅앱 등의 발달로 우표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우표 판매량도 2018년 6769만 장에서 지난해엔 2556만 장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감소폭이 현격히 큰 편이다. 이는 그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문화가 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의 사회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40년을 이어온 우표와 손편지의 역사도 시대 변화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우표의 미래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각종 메신저 등이 보편화되면서 우편 이용률이 감소하고 우표 발행도 줄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손편지에 담긴 순수한 감정은, 봉투에 꼭꼭 눌러 우표를 붙일 때의 그 애틋한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함이 없지 않겠어요. 저 또한 이 작은 우표 한 장이 국가 기록물로 역사에 남는다는 점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라는 각오로 우표 디자인에 더욱 매진할 겁니다."

신수민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HANGRY JOE'S HOT CHICKEN & WINGS
주6일 프렌차이즈
$320K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
COFFEE • BAKERY • SALAD • JUICE • TOAST • SMOOTHIE CAFE EXPRESS
주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
CARRY OUT
주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
THE BURGER
주6일 Deli
$25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
프렌치아이즈 / 카워시 / 리커
미엘신 케빈신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유럽 왕따가 된 영국 클래식, 임윤찬 프롬스 데뷔에 반색

지난달 29일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BBC심포니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면서 130년 역사의 영국 최대 클래식 축제 프롬스에 데뷔했다. 정경화, 정명훈, 사라 장, 조성진 등 한국 출신 국제적 클래식 음악가가 성공적으로 프롬스에 데뷔했지만, 올해 임윤찬의 등장을 반기는 런던 클래식 시장의 반응은 유독 야단스럽다.

지난달 29일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로 영국 최대 클래식 축제 BBC 프롬스에 데뷔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 Chris Christodoulou]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무 살 청년이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일까?"라는 프리뷰와 "스타 피아니스트가 베토벤의 미묘함과 광채를 선사하다"라는 리뷰로 임윤찬을 연이어 다뤘다. 프롬스 보도자료 라인업에서 임윤찬 이름은 첼리스트 요요마, 바이올리니스트 안네 소피 무터 바로 뒤에 있다.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으로 일으킨 신드롬을 프롬스가 수렴해 본인 임기 마지막 업적으로 말하고픈 프롬스 운영감독 데이비드 피카드의 조바심이 읽힌다.

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프롬스의 티켓 판매는 올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으로 프롬스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 축제'를 표방한 내실은 그렇지 않다. 여름 기간 프롬스를 반드시 거치던 세계적 오케스트라들이 좀처럼 런던에 머무르지 않는다. 과거 양성 균형, 세계 초연을 장려하던 프롬스는 경영난으로 축제에서 이름을 빼겠다는 BBC의 엄포에 대응하느라 프로그램의 세부를 챙기기 어렵다.

BBC "프롬스 축제서 이름 빼겠다" 엄포

실제로 축제와 방송사 연계가 무너지면 국제적 악단에 이어 도이치그라모폰, 데카 등 메이저 레이블이 보증한 수퍼 스타들이 짧은 여름 페스티벌 동안 다른 곳을 제치고 굳이 프롬스를 다녀갈 매력이 현저히 줄어든다. BBC가 프롬스에서 손을 뗄 경우, 런던 BBC 심포니, 맨체스터 BBC 필하모닉 등 방송사 악단이 지금처럼 축제에 들어갈 의무도 사라지고 이벤트는 지금 형태와 전혀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방송 악단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본질적으론 BBC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방송사가 이를 프롬스에 우회 지원하는 현행 영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가 앞으로 유효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프롬스와 BBC 모두 해답이 마땅치 않다. 2022 BBC 프롬스 재팬,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BBC 프롬스 코리아는 런던의 고충이 낳은 대안이다. 음악 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는 "런던은 음악계 지도에서 밀려났고 추락하고 곤두박질치는 중"이라고 논평한다.

EMI 폐업 이어 브렉시트 이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연주자들
여름에 런던 들리던 관행 사라져

임윤찬 같은 새로운 스타 띄워
신세대 중산층 관객 붙들어야
재정자립 이루고 재도약 가능

헨델과 하이든 이후 세계 클래식 시장의 허브로 군림하며 클래식물을 주도적으로 거래해온 런던은 2012년 EMI 폐업에 이어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최종 서명으로 클래식계 '장'과 '망'의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브렉시트 논의 초기 런던 대형 매니지먼트가 우려를 표명했듯, EU 탈퇴와 함께 영국이 경제적으로 유럽 단일시장에서 제외되면서 클래식 상품 교역은 구조상으론 1970년대 유럽경제공동체(EEC) 시절로 돌아갔다. 브렉시트 이후 코로나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수당 정부의 지방 분권책으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에서 내려왔다.

사이먼 래틀 키어 스타머

브렉시트 이후 런던 심포니, 로열 오페라, 프롬스가 내놓은 라인업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 베를린 필하모닉 장기 집권으로 영국 클래식의 상징이 된 영국인 지휘자 사이먼 래틀은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런던 심포니 전용홀 건립이 좌초되자 런던 심포니 음악감독에서 물러나 뮌헨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떠났다. 각국 고급 인재가 영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 래틀이 독일로 가면서 영국 클래식계의 이익을 외부에 대변할 대형 스피커가 사라진 셈이다. 로열 오페라에서 런던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안토니오 파파노가 과거 래틀이 하던 빅마우스 역할을 수행하긴 어렵다.

런던 근거의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는 맨체스터로 터전을 옮긴다. 우리로 치면 서울 소재 국립오페라단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격이다. 영국 음악학교와 악단, 오페라로 들어오려는 EU 출신 고급 인력은 크게 줄었고 영국 음악기관은 비자 처리가 불필요한 영국인과 영국 거주자들로 공연 시즌의 얼개를 짤 수 밖에 없다. 런던에 남은 파파노도 래틀이 지적한 영국 시장의 질적 하락을 서서히 체감하는 모양새다.

스타를 보유했던 런던의 대형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매니저들의 퇴사와 그들이 차린 부티끄 에이전시 성업으로 과거의 영화를 잃었다. 영국 오케스트라 협의회는 브렉시트, 전염병 위기, 러-우 전쟁을 화두로 대응책을 공동으로 모색하지만, 과거처럼 적은 개런티에도 런던을 찾았던 명성 있는 연주자를 다시 부르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EU 탈퇴로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된 영국 정부처지 그대로 유럽 시장에서 영국 악단은 왕따 신세다. 음반 제작과 영문 일간지 리뷰로 아티스트가 무형의 이익을 쌓으며 런던이 '클래식 수도'를 자처할 때, 이를 고깝게 바라보던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시장은 런던의 몰락을 방관하고 즐긴다. 영국 클래식계가 브렉시트로 얻은 이익은 보이지 않는다.

잉글랜드 쇠락을 반기는 측은 영국 안에도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당(SNP)은 2015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서 독립이 좌절됐으나 2016년 국론이 브렉시트로 결론나자, SNP 당수 니콜라 스터전은 2019년 파리 필하모니와 파리 오케스트라를 방문해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유대 강화를 선언했다. 영-불이 아닌, 스코틀랜드-프랑스가 에딘버러 페스티벌과 파리 필하모니를 축으로 친선을 나누자는 정치적 제스처였다. 지난 7월 총선에서 SNP는 참패했지만, 브렉시트를 스코틀랜드 독립 논의의 분기점으로 삼으려는 '잉글랜드 패싱' 전략은 스코틀랜드의 소프트 분야에서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런던 프롬스는 가지 않지만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향하는 유럽 저명 악단이 등장한다면 SNP 전략은 결실을 맺는다.

스타머 정부 '팔길이 원칙' 지킬지 주목

지난 7월 총선에서 압승한 영국 노동당과 당수 키어 스타머가 이끌 영국 내각이 과거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 시절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념을 문화 예술 정책으로 계승할진 의문이다. 각종 정책을 발현할 영국의 여건과 환경,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발표 2022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7만6000달러를 넘었지만 영국은 4만8000달러 수준이다. UN 발표 평균수명에서 영국은 몰타, 슬로베니아를 가까스로 제친 세계 29위권이다.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의 대전제로 가져갈지는 스타머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 기관 편의와 국민 향유 증대 사이에서, 예술성이 뒤처지면서도 국가재정을 꾸준히 축내고 있는 단체를 얼마나 정리할 것인가의 과제가 스타머 앞에 놓였다.

무엇보다 런던이 바뀌지 않으면 영국 클래식의 미래는 없다. 클래식 음악을 '엘리트의 음악'으로 설정하고 런던 심포니 연주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영국 잡지 그라모폰 리뷰를 동아시아 수출의 동력으로 삼던 얄팍한 상술로는 런던의 경관을 바꾸기 어렵다. 사우스뱅크와 바비컨센터의 낡은 외관이 자아내는 제한적인 청각적 경험으론 더 이상 새로운 세대가 클래식에 접근할 수 없다. 런던 클래식의 핵심인 런던 필하모닉과 필하모니아의 사우스뱅크 정기 연주회 축소를 대체하는 공연은 영화 시사회와 필름 콘서트다.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콘서트홀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런던 클래식 시장의 회복은 요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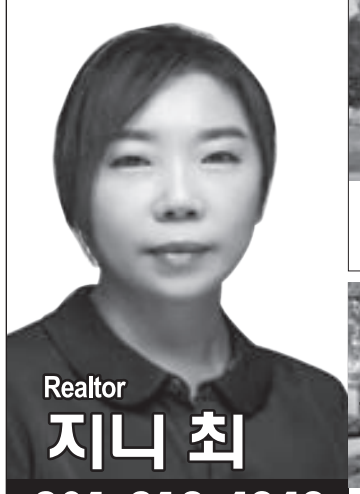
궁극적으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고안한 보조금 형태로 영국 예술위원회에 의존했던 단체들이 정부 재정에서 자립하느냐에 영국 클래식 시장의 성패가 달렸다. 해답은 멀지 않다. 임윤찬과 같은 세계적 클래식 연주자의 실내악 가치를 먼저 알아본 위그모어홀과 '젊은 위그모어홀'에 도전하는 킹스플레이스의 경영 방식이 그것이다. 로열 오페라 시즌권을 구매하는 부유층과 나이트라이프를 즐기는 관광객 수입 사이에서 이들이 집중한 건 영국 중산층이다. 적절한 티켓가격 설정과 흡족한 음향 환경이 유인하는 중산층의 반복 구매는 우리 클래식계도 주목할 만 하다.

한정호 공연평론가·에투알클래식 대표

REALTY ONE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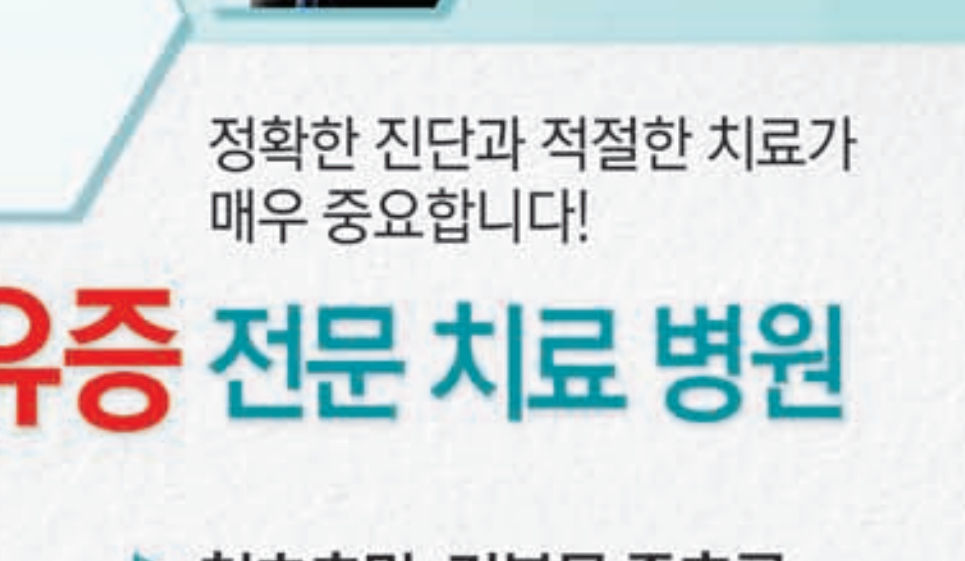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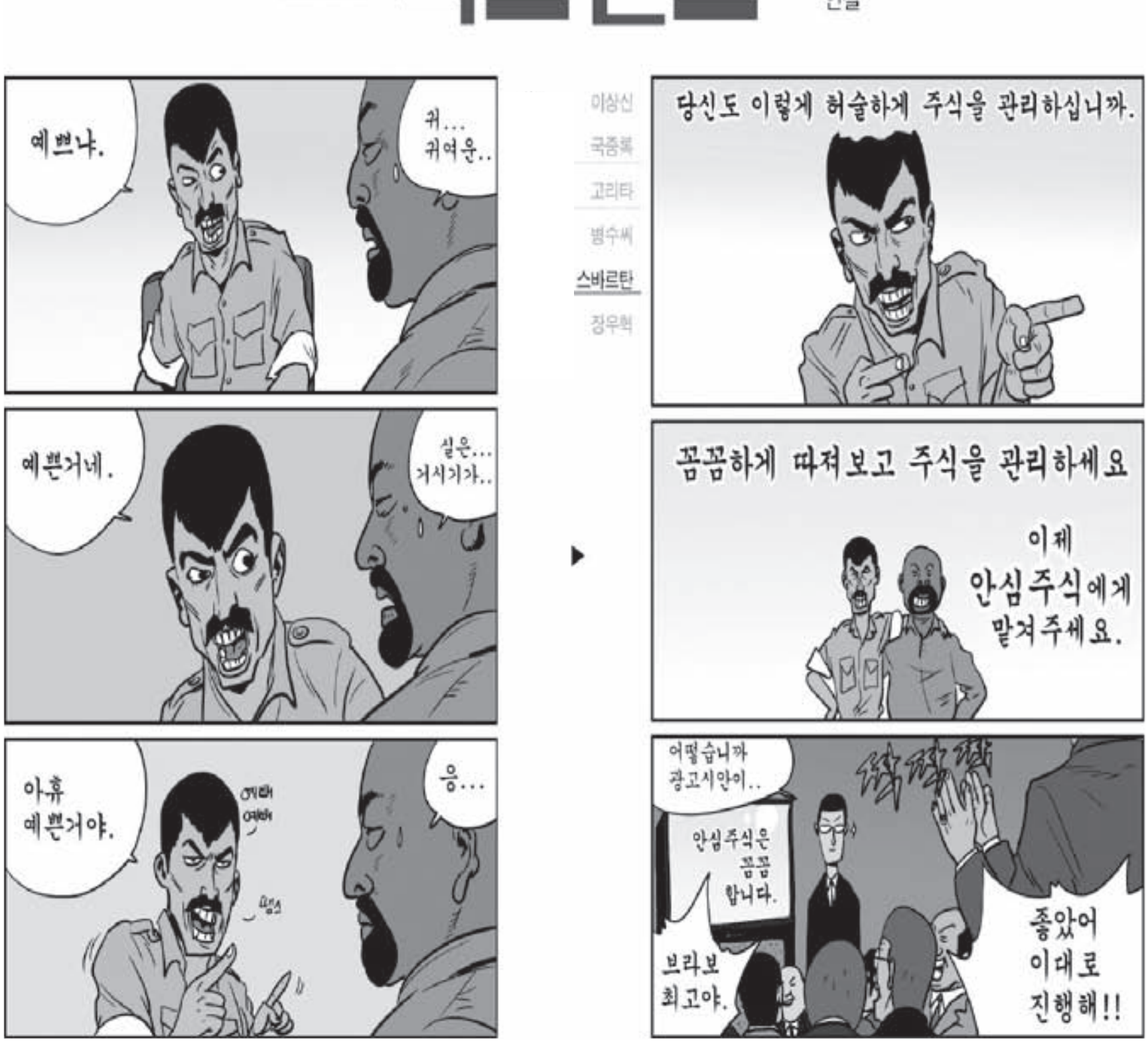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인질

이상신 국중록 고리타 봉수씨 스바르탄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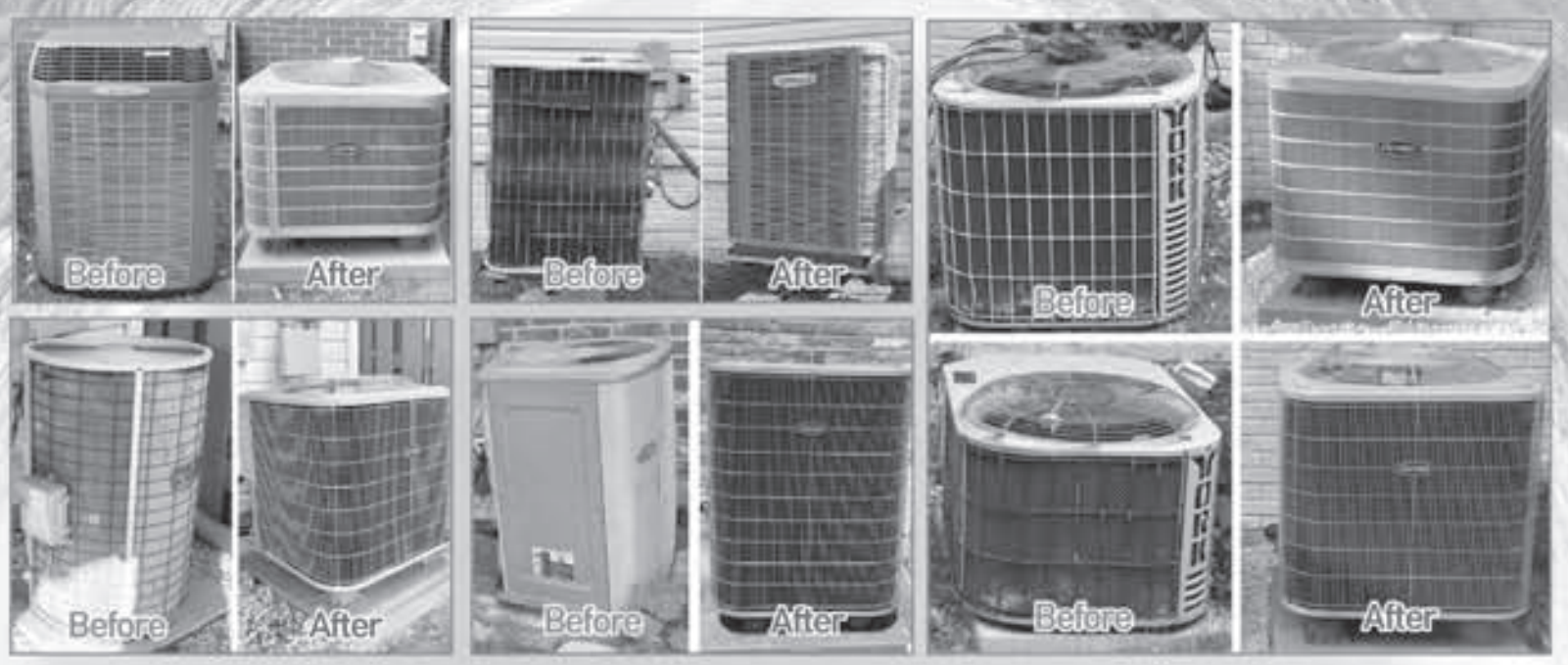
COO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sor BBB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8월 구인광고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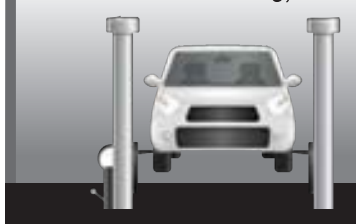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 -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베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줄광고가 1개월 $20 유료 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줄광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생활안내 광고를 애용해 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 자세한 문의 :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 :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 주 48~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험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차정비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륜델밀 샤핑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책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 ,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버지니아 지역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심원섭 회계법인에서 일할 회계직원 구합니다.
(1) Manager/5-7yrs experience. CPA Required. (2) Sr. Accountant /3-5yrs experience. (3) Admin-Excel, Data Entry and Bilingual skills
Compensation: Salary + Benefits
msim@michaelsimcpa.com

애난델.시원한 사무실서 파.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급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두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좋음!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케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에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제과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 / 파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EV Electric Co.
차,베네펫,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기타 구인/구직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다. 월-금, 오후 3 PM - 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 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포(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 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싱글홈 지하 렌트 웍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챈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웍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근처 66도로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근처
웍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 바람
703-678-7833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 월 $640(유포) 문자요망
614-615-9054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뮨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렌트 유포
703-598-5719

아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뒤 지하 방/유포
703-887-517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미쉘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지니스 하세요!
샤핑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쉘터 / • 시간 :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 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 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 메니져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달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yelp HomeAdviso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덱·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밍 써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 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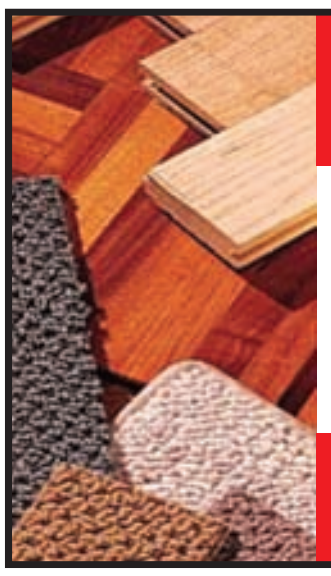
703-582-7757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m not going to have it: 절대 허락할 수 없어

(Tina is talking to her mother, Helen…)
(티나가 엄마 헬렌과 얘기한다…)

Tina: Mom, may I ask you a question?
티나: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
Helen: Sure, what is it?
헬렌: 그럼, 뭔데?
Tina: Now don't get bent out of shape when you hear this.
티나: 듣고 나서 화내고 그럼 안돼.
Helen: What is it?
헬렌: 뭔데 그래?
Tina: I want to get a tattoo. Can I get one?
티나: 문신을 새기고 싶은데. 하나만 해도 될까?
Helen: Absolutely not!
헬렌: 절대 안돼!
Tina: Why not? My friends at school have them.
티나: 왜? 학교 친구들은 했는데.
Helen: Your friends at school are not my daughters. It's out of the question.
헬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내 자식들이 아니잖아. 절대 안돼.
Tina: Just a little one.
티나: 작은 것 하나만.
Helen: No way! I'm not going to have it. Not my daughter.
헬렌: 안돼!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내 딸은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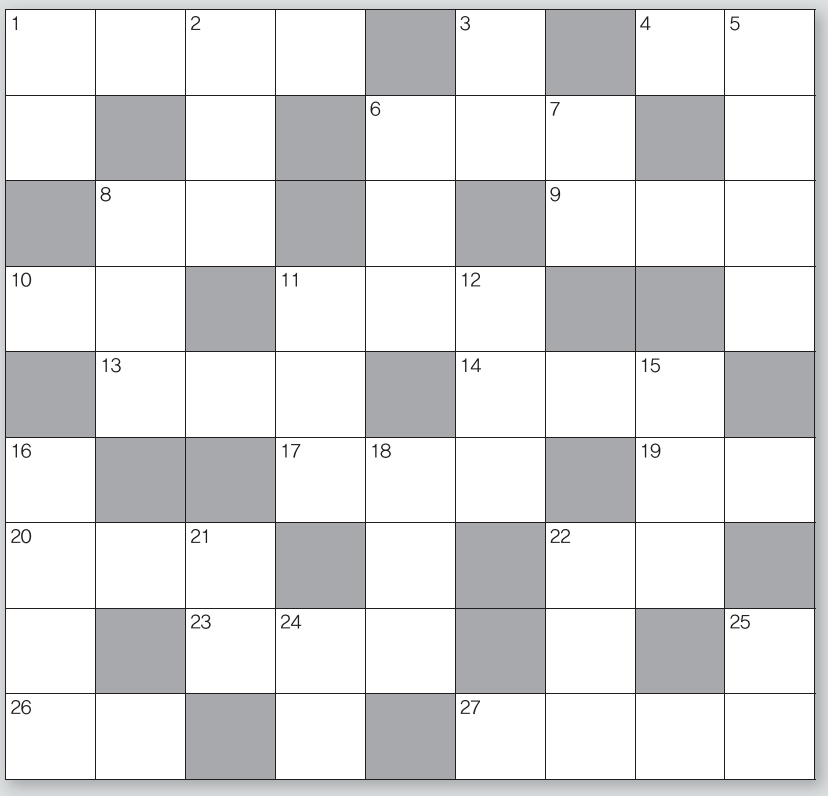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 get bent out of shape: 버럭 화를 내다
"My father got bent out of shape when I took his car without asking him first." (우리 아빠는 묻지도 않고 아빠 차를 썼다고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 it's out of the question: 말도 안되다
"You're not sleeping at your friend's house this weekend. It's out of the question." (주말에 친구네 집에서 자는 건 안돼. 그건 말도 안된다.)

▶ no way: 절대 안된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
"No way am I going to be able to move that piano by myself. I'll need help." (그 피아노를 저 혼자 옮긴다는 건 절대 못하죠. 도움이 필요해요.)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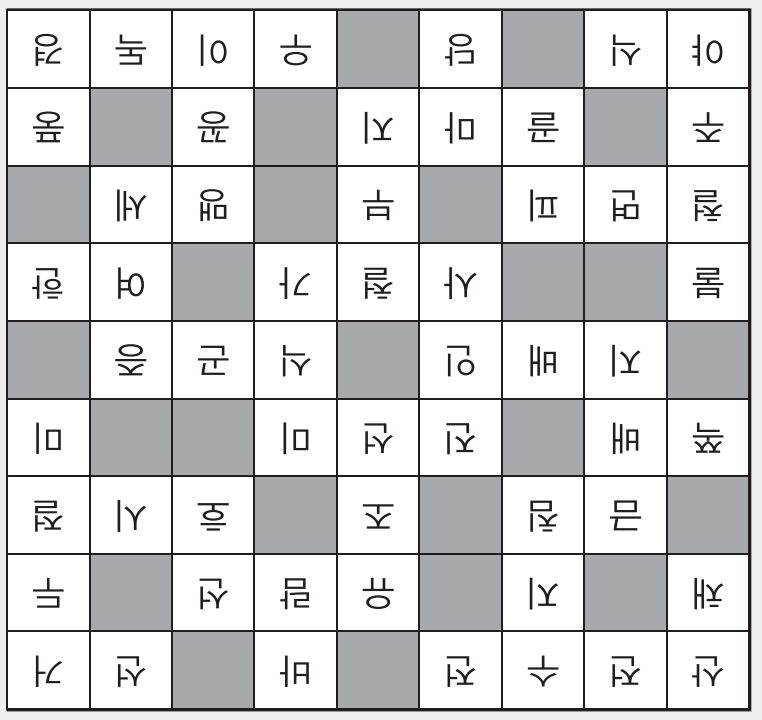


가로열쇠

(1)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음.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음 (4)공직에 임할 사람을 뽑는 일. 국회의원 ~ (6)구경하는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배. 크루즈 ~ (8)이부자리와 베개. 이윽고 그들의 신혼방에 ~이 펼쳐졌다 (9)좋은 때나 철. 삼월 ~을 맞아 초목은 자라나고 온갖 꽃이 만발했다 (10)통나무의 속을 파서 만든 작은 배.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윤극영) (11)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 (13)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 (14)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17)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봄은 찾어왔건마는 세상사 쓸쓸하드라/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19)풀지 못해 남은 바람이나 한. 이제 죽어도 ~이 없다 (20)쇠로 만든 낯가죽.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 (22)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23)물기 많은 음식물 겉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물질 (26)밤에 음식을 먹음. 밤참 (27)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세로열쇠

(1)산에 나는 나물. ~ 비빔밥 (2)손에 짧은 침을 꽂아 병을 치료하는 침술 (3)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짐. 이웃집 남자와 ~이 나다 (5)머리(두)와 꼬리(미)를 잘라 버림. 어떤 일의 요점만 간단히 말함 (6)석유를 운반하는 배 (7)여럿 중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좋아함. 아들 ~ 사상이 많이 희미해졌다 (8)국회 의원을 상징하는 배지 (11)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도리를 다함. ~ 대천명 (12)음식에 대하여 특별한 기호를 가진 사람 (15)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16)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불□□□ (18)철없는 어린아이 (21)살가죽과 뼈. 그 사람은 ~이 상접할 정도로 몸이 말랐다 (22)비가 오거나 날이 흐릴 때면 요란하게 우는 멸종위기 양서류. 약빠른 데라고는 전혀 없어 하는 짓이나 말이 답답한 사람. 밤에만 땅 위로 나와 먹이를 찾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요 (24)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 (25)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 붕어 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소리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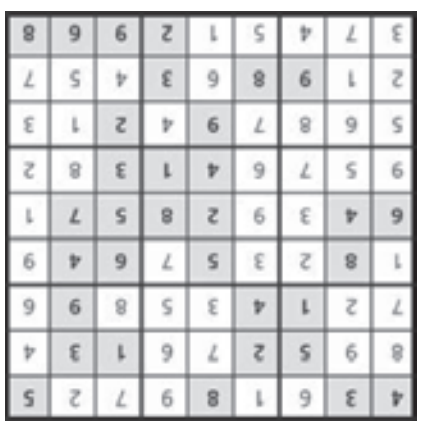


스도쿠

4	3			8				5
		5	2			1	3	
		1	4				9	
	8			5		6	4	
6	4			2	8	5	7	
				4	1	3		
				9		2		
		9	8		3			
					2	9	6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구인

딜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차콜온돌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 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리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윤활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익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휘노씨]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젠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book7080.com ➡ 편지 보기 >

전립선 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www.J2V.co.kr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총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YouTube "대진 메디칼을 검색하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